

다시보는
6월 모의평가
김덕근T 정수민T 이윤희T 이훈석T

심훈T
6월 국어 점수에
실망한 K에게

전제립T 심훈T 김은석T 박종T 선T 강원우T
수능 D-100,
공부는 '이렇게'

다원교육입시연구소 소장 정성민
수시원서접수
자기소개서 문항별 접근

D-DAY

2019년 8월 6일
발행인 박윤찬, 임다민



"6월 국어점수에 실망한 K에게"
강남서초 내일신문 (심훈국어논술연구소)

"입시연구소장님께, 수시를 묻다."
더이상 혼자 고민하지말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원교육

2019

수능 D-100 대비 학습칼럼



집필진: 박윤찬, 임다민

Copyright © (주)다원교육 All rights reserved.

Contents

Contents

1. 다시보는 6월 모의평가

[물리] 김덕근 선생님

[화학] 이윤희 선생님

[생물] 정수민 선생님

[지학] 이훈식 선생님

2. 수능 D-100 대비 공부법

[국어] 심훈 선생님 전재림 선생님

[수학] 맹룡 선생님 김은석 선생님

[영어] 선티 선생님 강원우 선생님

-SUB. " 6월 국어 점수에 실망한 K에게 "

3. 수시접수, 자기소개서 문항별 접근법

[학종] 정성민 입시연구소장님

정주현 연구원님

-SUB. " 수시를 묻다 "

다시보는 6월 모의평가

[물리] 김덕근T

[화학] 이윤희T

[생물] 정수민T

[지학] 이훈식T



김덕근 선생님

6월 모의고사

손글씨 해설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물리 I 총평

1, 2, 3쪽 비역학 문항들의 주요 특징은 “기본 개념의 숙지”와 “논리적 추론”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입니다.

4번 문항은 “진동수”라는 물리량의 기본적인 의미를 묻고 있고, 9번 문항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의 에너지 준위를 제시하여 선스펙트럼에 나타난 광자의 진동수를 대응시킬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두 문항 모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 정도를 측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13번의 전반사와 14번의 전기장 문제 또한 “어떤 주장의 참 거짓을 하나의 가정에서 출발하여 모순이 생기지 않는지 점검하는 일련의 사고 과정을 묻는 문제들입니다.

4쪽의 역학 문항들의 난이도는 비교적 평이하였으며, 앞으로 9월 평가원과 수능에서 비역학 문제 중 “논리적 추론” 문제로 변별력을 주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비역학 단원의 철저한 준비가 역학 단원 문제를 풀어낼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선적으로 비역학 단원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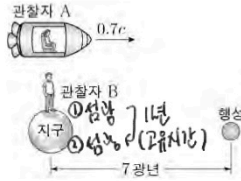


과학탐구

김덕근 선생님

-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 졸업
- (現) KDK모의고사 출제위원
- (現) 다원교육 물리 대표강사
- (前) 명덕외고 교사

12.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행성을 향해 가고 있다. 관찰자 B가 측정할 때, 행성까지의 거리는 7광년이고 우주선은 $0.7c$ 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한다. B는 멀어지고 있는 A를 향해 자신이 측정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1년마다 빛 신호를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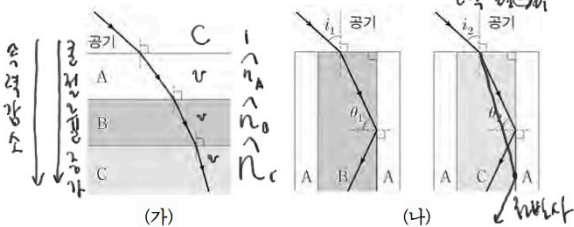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c 는 빛의 속력이다.) [3점]

- <보기>
- ㄱ. A가 B의 신호를 수신하는 시간 간격은 1년보다 짧다.
 ㄴ. A가 측정할 때, 지구에서 행성까지의 거리는 7광년보다 작다.
 ㄷ.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3. 그림 (가)는 단색광 X가 광섬유에 사용되는 물질 A, B, C를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A, B, C를 이용하여 만든 광섬유에 X가 각각 입사각 i_1, i_2 로 입사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θ_1, θ_2 는 코어와 클래딩 사이의 임계각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굴절률은 C가 A보다 크다.
 ㄴ. $\theta_1 < \theta_2$ 이다.
 ㄷ. $i_1 > i_2$ 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4. 그림과 같이 점전하 A, B가 각각 $x=0, x=3d$ 에 고정되어 있다. A는 음(-)전하이다. 양(+)전하를 띤 입자 X의 위치를 바꾸어 가며 X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측정하였더니, $x=-d, x=d, x=4d$ 에서 각각 F_1, F_2, F_3 이었다.



$F_2 > F_3 > F_1$ 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기>
- ㄱ. 전하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ㄴ. $x=d$ 와 $x=2d$ 사이에 X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다.
 ㄷ. $x=-d$ 에서 X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x$ 방향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vec{E}_A$: $\frac{1}{16}$
 $\vec{E}_B$: $\frac{1}{4}$
 B의 크기가 A의 크기보다 작으면, $F_2 < F_3$
 B의 크기가 A의 크기보다 크면, $F_1 > F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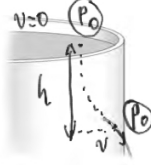
$\vec{E}_A$: $\frac{1}{16}$
 $\vec{E}_B$: $\frac{1}{4}$
 B의 크기는 A의 크기보다 작을 경우,
 $F_2 > F_3 > F_1$: 즉 B는 +Q보다 크나

다시 생각: $x=-d$ 에서 $-x$ 방향의 힘이 더 클 때,
 B는 +Q보다 작아야 하며,
 그러면, $F_2 < F_3$ 이 되고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네요.
 B는 +Q보다 작은 값이어야 합니다.

4 (물리 I)

과학탐구 영역

17. 그림은 커다란 수조의 작은 구멍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구멍의 단면적은 1 cm^2 이고, 물이 새어 나오는 동안 구멍의 중심에서 수면까지의 높이는 5 m 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물이 베르누이 법칙을 만족한다고 할 때, 새어 나온 물의 양이 200 kg 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중력 가속도는 10 m/s^2 이며, 물은 밀도가 1000 kg/m^3 이다.)

- ① 1분 40초 ② 3분 20초 ③ 5분
④ 6분 40초 ⑤ 8분 20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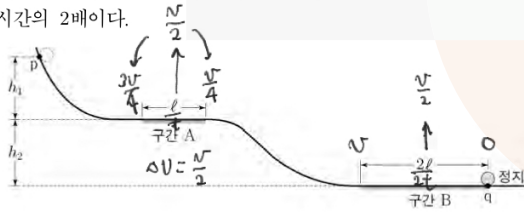
(1) 수면과 구멍 사이에서 물의 베르누이 법칙을 사용하면
대항속이 발생하므로

$$\rho gh = \frac{1}{2}\rho v^2 \text{ 대항 } v^2 = 2gh = 100, v = 10\text{ (m/s)}$$

(2) 구멍 단면적과 유속의 곱 SA 는 일정인 면을
지나는 부피이며, $(1 \times 10^{-4})(10)\text{ (m}^3/\text{s}) = 10^{-3}\text{ (m}^3/\text{s})$

(3) 200 kg 의 물의 부피는 $0.2\text{ (m}^3)$ 이므로
 $(0.2) \div (10^{-3}) = 200(\text{s}) = 3\text{분}20\text{초}$

18. 그림은 점 p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궤도를 따라 운동하여 점 q에서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길이가 각각 $\ell, 2\ell$ 인 수평 구간 A, B에서는 물체에 같은 크기의 일정한 힘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p와 A의 높이 차는 h_1 , A와 B의 높이 차는 h_2 이다. 물체가 B를 지나는 데 걸린 시간은 A를 지나는 데 걸린 시간의 2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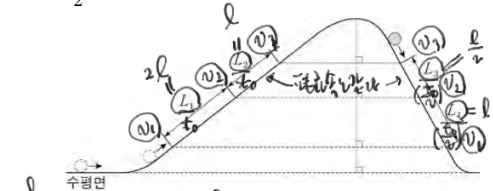


$\frac{h_1}{h_2}$ 은? (단, 물체의 크기,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3점]

- ① $\frac{1}{2}$ ② $\frac{3}{5}$ ③ $\frac{3}{4}$ ④ $\frac{4}{5}$ ⑤ $\frac{5}{6}$

$$\frac{2gh_1}{2gh_2} = \frac{\left(\frac{3v}{4}\right)^2}{v^2 - \left(\frac{v}{4}\right)^2} = \frac{\frac{9}{16}}{\frac{15}{16}} = \frac{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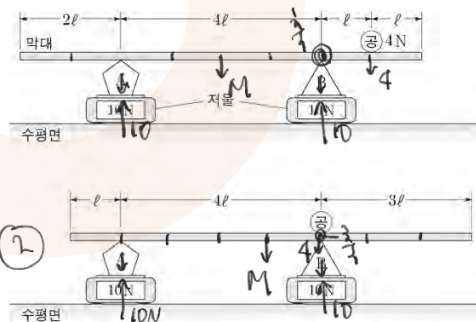
19.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운동하던 물체가 왼쪽 빗면을 따라 올라간 후 곡선 구간을 지나 오른쪽 빗면을 따라 내려온다. 물체가 왼쪽 빗면에서 거리 L_1 과 L_2 를 지나는 데 걸린 시간은 각각 t_0 으로 같고, 오른쪽 빗면에서 거리 L_3 을 지나는 데 걸린 시간은 $\frac{t_0}{2}$ 이다.



$L_2 = L_1$ 일 때, L_3 은? (단, 물체의 크기,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 ① $\frac{3}{2}$ ② $\frac{5}{2}$ ③ 3 ④ 4 ⑤ 6

20. 그림은 물체 A, B가 각각 저울 위에 놓여 있고, 공을 올려놓은 막대가 A, B 위에 수평으로 정지해 있는 두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막대의 길이는 8ℓ 이고, 공의 무게는 4 N 이다. 두 경우 모두 저울에 측정된 무게는 10 N 으로 같다.



A의 무게는? (단, 막대의 밀도는 균일하고, 두께와 폭은 무시한다.) [3점]

- ① 5 N ② 6 N ③ 7 N ④ 8 N ⑤ 9 N

(1) 등점회전 법칙의 법칙 $= M \times l - 4 \times l = 0, M = 4$

(2) ②에서 등점회전 법칙 $= -4A - M \times l + 10 \times 4 = 0$

$$A = 9$$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이윤희 선생님

6월 모의고사

해설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화학 I 총평

2020학년도 6월 평가원의 난이도는 1등급 컷이 44점, 2등급 컷이 39점 정도로 예상됩니다. 작년 수능 때와 1등급 컷은 비슷하지만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 조금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고3학생들이 아직 과탐 공부가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킬러 문항에서는 역시 산화환원 반응 문제가 오답률 약 7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것도 난이도에 비해서 많이 높은 편이었는데, 이유는 20번 문제로 시간 부족이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 9번 양론문제는 67%, 17번 중화 반응 문제는 64%의 오답률을 나타내었습니다.

향후 대책은 2단원과 3단원은 핵심개념을 암기해서 문제 푸는 시간을 많이 줄이고 나머지 시간을 킬러문제 푸는데 집중해서 만점 또는 1등급을 노려야 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킬러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 시간은 2단원과 3단원을 실수 없이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킬러 문제 유형만 연습해서는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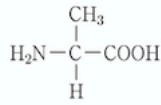
과학탐구

이윤희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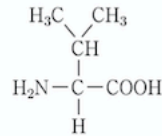
- 現) 다원교육 화학 대표강사
- 前) 강남대성 강의평가 1위
- 現) 도치모의고사 집필진
- 現) 시대인재 화학 출강



8. 그림은 분자 (가)와 (나)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가)와 (나)는 모두 아미노산이다.
 ㄴ. (가)는 물에서 아레니우스 염기로 작용한다.
 ㄷ. (나)를 HCl(aq) 에 녹일 때 (나)는 루이스 염기로 작용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0. 다음은 2주기 원소 W~Z로 이루어진 분자 (가)~(다)의 분자식을 나타낸 것이다. 전기 음성도는 $X > Y > W$ 이고, 분자 내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W~Z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보 기>

- ㄱ. (가)에는 공유 전자쌍이 2개 있다.
 ㄴ. (가)~(다) 중 극성 분자는 2가지이다.
 ㄷ. Y_2 에는 다중 결합이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8번. 5

point. 아미노산의 구조를 암기하고 양쪽성 물질의 성질 이해하기.

해설.

- ㄱ. 아미노산은 가운데 C 원자를 두고, 양쪽에 한쪽은 NH_3 (아미노산), 다른쪽은 COOH (카복실기)를 포함한 물질이다. (가)와 (나)는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므로 모두 아미노산이다. (O)
- ㄴ. 아레니우스 염기는 물에 녹았을 때 OH^- 를 내는 물질이다. (가)를 물에 녹여도 COOH 가 CO^+ 와 OH^- 로 이온화되지 않으므로 OH^- 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가)는 아레니우스 염기가 아니다. (X)
- ㄷ. 루이스 염기는 비공유 전자쌍을 내보내는 물질이다. (나)를 HCl 에 녹이면 물에 녹아있는 H^+ 에 NH_2 가 비공유 전자쌍을 줘서 NH_3^+ 를 만든다. 따라서 (나)는 이 상황에서 루이스 염기로 작용한다. (O)

10번. 5

point. 3원자 분자가 옥텟규칙을 만족할 때 분자 찾기.

해설.

- 2주기 3원자 분자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며, AB_2 꼴을 만족하는 것은 CO_2 와 OF_2 뿐이고, 전기 음성도가 $X > Y > W$ 이므로 WX_2 는 CO_2 , XZ_2 는 OF_2 이다. 따라서 W, X, Z는 각각 C, O, F이고, Y는 N이다. 따라서 YZ_3 은 NF_3 이다.
- ㄱ. CO_2 에는 공유 전자쌍이 4개 있다. (X)
- ㄴ. CO_2 는 무극성, NF_3 은 극성, OF_2 는 극성이다. (O)
- ㄷ. $\text{Y}_2 = \text{N}_2$ 는 3중 결합이 있다. (O)

14. 다음은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A~C에 대한 자료이다.

원자	A	B	C
총 전자 수	$x+3$	$x+6$	$x+10$
원자가 전자 수	$x+1$	$x-4$	x

○ A~C는 18족 원소가 아니다.
○ A~C 중 원자가 전자 수와 홀전자 수가 같은 것이 1가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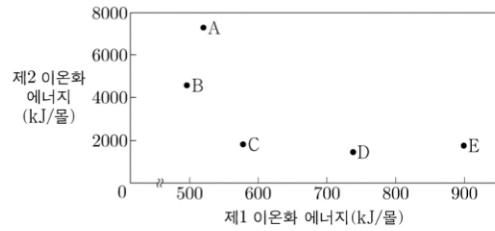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C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보 기>

- ㄱ. 원자 반지름은 $B > A$ 이다.
ㄴ. 전기 음성도는 $C > A$ 이다.
ㄷ.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C > B$ 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16. 그림은 원자 A~E의 제1 이온화 에너지와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A~E의 원자 번호는 각각 3, 4, 11, 12, 13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E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3점]

<보 기>

- ㄱ. 원자 번호는 $B > A$ 이다.
ㄴ. D와 E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ㄷ. 제3 이온화 에너지/제2 이온화 에너지는 $C > D$ 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4번. 4

point. 원자가 전자 수와 홀전자 수가 같은 것은 1족 원소이다.

해설.

원자가 전자 수와 홀전자 수가 같은 것 (=1족)이 1개 존재하고, 원자가 전자 수는 음수가 될 수 없고, 2,3주기가 하나씩은 있어야 하므로 B가 1족 원소이고, =5이다. 따라서 A,B,C는 각각 O, Na, P이다.

- ㄱ. 원자 반지름은 $Na > O$ 이다. (O)
ㄴ. 전기 음성도는 $O > P$ 이다. (X)
ㄷ.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P > Na$ 이다. (O)

16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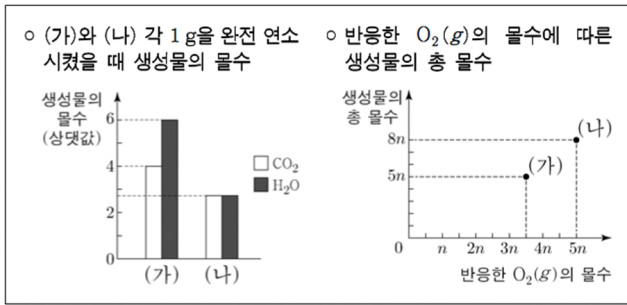
point. 같은 주기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1족이고, 같은 족에서 같은 차수의 이온화 에너지는 주기가 작을수록 크다.

해설.

A~E는 각각 Li, Be, Na, Mg, Al 중 하나이다. 그림에서 제 2이온화 에너지가 A가 가장 크므로 A는 Li이고, B의 제 1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기 때문에 B는 Na이다. Be, Mg, Al 중 Al의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기 때문에 C는 Al이고, 제 1이온화 에너지는 E가 제일 크므로 E는 Be이다. 따라서 D는 Mg이다.

- ㄱ. 원자 번호는 $Na > Li$ 이다. (O)
ㄴ. Mg는 3주기이고, Be는 2주기이다. (X)
ㄷ. 제 3이온화 에너지/제 2 이온화에너지 는 $Mg > Al$ 이다 ($\because$ 제 2 이온화 에너지 $Al > Mg$, 제 3 이온화 에너지 $Mg > Al$). (X)

18. 다음은 화합물 (가)와 (나)의 완전 연소 반응에 대한 자료이다.
(가)와 (나)의 분자식은 각각 C_aH_b , $C_xH_yO_z$ 중 하나이다.



(가)와 (나)를 완전 연소시킨 후 같은 질량의 H_2O 이 생성되었을 때 반응한 (가)의 질량은? (단, H, C, O의 원자량은 각각 1, 12, 1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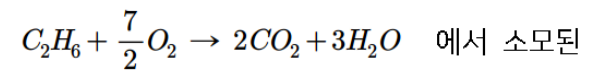
- ① $\frac{4}{9}$ ② $\frac{5}{11}$ ③ $\frac{6}{13}$ ④ $\frac{7}{15}$ ⑤ $\frac{1}{2}$

18번. 2

point. 탄소 화합물을 완전 연소시 생성되는 CO_2 의 몰수는 탄소 화합물의 C원자수와 같고, H_2O 의 몰수는 탄소 화합물의 H수의 $\frac{1}{2}$ 이다.

해설.

왼쪽 그림에서 (가)를 보면, 1g을 연소시켰을 때 나오는 CO_2 와 H_2O 의 몰수비가 2:3이므로, 이 화합물에 들어 있는 C와 H의 비는 1:3이다.



산소와 생성물의 비가 3.5:5를 만족한다. 따라서 (가)는 C_2H_6 이다. (나)는 탄화수소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이고, 왼쪽 그림에서 (나) 1g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CO_2 와 H_2O 의 몰수비가 1:1 이므로 (나)를 $C_xH_{2x}O_z$ 로 나타낼 수 있고, 왼쪽 그림에서 산소 5몰이 반응했을 때 생성물의 몰수가 8몰이므로, CO_2 와 H_2O 가 각각 4몰씩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생성물에서 C, H, O의 몰수는 각각 4, 8, 12몰이고, 소모된 산소는 10몰 이므로 (나)를 구성하는 C, H, O의 몰수비는 4:8:2=2:4:1이므로 (나)는 C_2H_4O 이다. (가)

1몰을 연소시켰을 때 H_2O 는 3몰 생성되고, (나) 1.5몰을 연소시켰을 때도 H_2O 는 3몰 생성되므로,

$$\frac{\text{반응한 (가)의 질량}}{\text{반응한 (나)의 질량}} = \frac{12 \times 2 + 1 \times 6}{(12 \times 2 + 1 \times 4 + 16) \times 1.5} = \frac{30}{66} = \frac{5}{11}$$

이다.

19. 다음은 A(g)와 B(g)의 양을 달리하여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I ~ III에 대한 자료이다.

○ 화학 반응식: $A(g) + bB(g) \rightarrow cC(g)$ (b, c 는 반응 계수)

실험	반응 전 물질의 양		전체 기체의 부피	
	A(g)	B(g)	반응 전	반응 후
I	2n 몰	n 몰	3V	$\frac{5}{2}V$
II	n 몰	3n 몰	4V	3V
III	xg	xg		$\frac{45}{8}V$

○ 실험 III에서 반응 후 A(g)는 $\frac{3}{4}xg$ 이 남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반응 전과 후의 온도와 압력은 모두 같다.) [3점]

<보 기>

- ㄱ. $b=4$ 이다.
 ㄴ. 분자량은 C가 A의 2.5배이다.
 ㄷ. 반응 후 생성된 C의 몰수 비는 II:III = 8:9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19번. 5

point. 같은 반응에서 반응의 변화량의 비는 그 반응에 참여한 몰수비와 같다.

해설.

실험 1과 2에서 반응 전 물질의 양의 합은 각각 $3n, 4n$ 몰이고, 반응 전의 부피는 각각 $3V, 4V$ 이므로 1몰의 부피를 $1V$ 로 정하면 $n=1$ 이다. 실험 1과 2에서 실험

1은 반응 후에 부피가 $\frac{1}{2}V$ 만큼, 실험 2는 부피가 $1V$

만큼 줄었으므로 실험 2가 실험 1에 비해 2배 더 반응했음을 알 수 있다. 실험 1에서의 한계 반응물이 A라고 하면, 실험 2에서도 한계 반응물이 A가 되어야 하는데, 실험 2는

1보다 반응을 2배 더 해야 하므로 모순이 생긴다. 따라서 실험 1의 한계 반응물은 B이며, 실험 2의 B를 모두 반응시키면 실험 1보다 3배 더 많은 반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험 2의 한계 반응물은 A이고, 이때 반응하는 B는 2몰이다. 따라서, A와 B의 반응 몰수비는 1:2이고,

$b=2, c=2$ 이다. 그러므로 완성된 화학 반응식은

$A(g) + 2B(g) \rightarrow 2C(g)$ 이다. 실험 3에서 반응 후

A(g)가 $\frac{3}{4}xg$ 남았으므로, A와 B의 반응 질량비는

1:4이고, 반응 몰수비는 1:2이므로 A와 B의 분자량비는 1:2이고, C 2몰은 A 1몰과 B 2몰이 반응해서 생성되므로

A, B, C의 분자량비는 $1:2:\frac{1+2 \times 2}{2}=2:4:5$ 따라서 실험 3

에서 A, B xg 을 각각 $2a, a$ 몰이라고 하면 반응한 A는 $0.5a$ 몰이고, 반응 후 기체의 몰수는 $3a - 0.5a = 2.5a$ 몰

이다. $\frac{5}{2}a = \frac{45}{8}$ 에서 $a = \frac{9}{4}$. $a = \frac{9}{4}$ 몰 이다.

ㄱ. $b=2$ 이다. (X)

ㄴ. A와 C의 분자량비는 2:5이다. (O)

ㄷ. 반응 후 생성된 C의 몰수비는 II:III $2:\frac{9}{4}=8:9$ 이다. (O)

20. 다음은 금속 A~C의 산화 환원 반응 실험이다.

[실험 과정]

(가) A^{a+} , B^{b+} , NO_3^- 이 들어 있는 수용액을 준비한다.

(나) (가)의 수용액에 C(s)를 1g씩 넣어 반응시킨다.

[실험 결과]

- 반응한 C(s)는 C^{c+} 이 되었다.
- A^{a+} 이 모두 반응한 후, B^{b+} 이 반응하였다.
- 반응이 완결되었을 때, 넣어 준 C(s)의 총 질량에 따른 수용액에 존재하는 전체 이온 수

넣어 준 C(s)의 총 질량(g)	0	1	2	3	4
수용액에 존재하는 전체 이온 수 (상댓값)	34	31	30	31	x

(가)의 수용액에 존재하는 B^{b+} 수
 (가)의 수용액에 존재하는 A^{a+} 수 $\times x$ 는? (단, $a \sim c$ 는 3 이하의 자연수이고, 물과 NO_3^- 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3점]

- ① 36 ② 25 ③ 16 ④ 14 ⑤ 9

20번. 4

point. 두 종류에 금속 이온이 들어있는 비커에 다른 종류의 금속을 넣었을 때, 전체 이온수의 감소, 증가가 둘 다 나타날 때 원래 있던 이온의 산화수는 1,3이고, 새로 넣어준 금속의 산화수는 2이다.

해설.

표에서 C를 넣어줄 때 전체 이온수의 감소, 증가가 모두 관측되었기 때문에 C의 산화수는 2이고, A,B의 산화수는 1,3 중 하나이다. 실험 결과에서 A^{a+} 가 먼저 다 반응한 후 B^{b+} 가 반응했는데, 전체 이온수는 감소했다가 증가하므로 A의 산화수는 1, B의 산화수는 3이다.

표에서 처음에 존재하는 전체 이온 수가 34몰이라고 하면, C 1g을 넣었을 때의 전체 이온 수가 31몰이므로 C 1g은 3몰, 반응한 A^{1+} 는 6몰임을 알 수 있다.

다음에 C 1g을 더 넣었을 때 이온수가 31몰 → 30몰로 바뀌므로 A^{1+} 와 B^{3+} 가 모두 반응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반응한 A^{1+} 와 B^{3+} 의 몰수의 총합은 4몰이고 ($\therefore 31 - 4(\text{반응한 A와 B의 합}) + 3(\text{추가된 C}) = 30$), 각각을 $x, 4 - x$ 몰이라고 하면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 $3 \times 2 = x + (4 - x)3$ 에서 $x = 3$ 이다. 따라서 처음에 A^{1+} 는 $3 + 6 = 9$ 몰 들어있었다. 처음에 음이온과 양이온의 전하량이 같아야 하므로, 처음에 들어 있는 B^{3+} 의 수를 y 몰, NO_3^- 의 수는 $25 - y$ 몰 몰이라고 하면 ($\therefore$ 전체=34), $9 + 3y = 25 - y$ 에서 $y = 4$ 이다. 따라서 초기의 B^{3+} 의 수는 4몰이었고, C를 2g 넣었을 때 반응하고 남은 B^{3+} 의 수는 3몰이다. 여기서 C를 2g(=6몰) 넣었을 때 더 반응한 B^{3+} 은 3몰 모두 반응하고, 이때 C^{2+} 는 4.5몰 반응했다. 따라서 $x = 31 + 1.5(\text{생성된 } C^{2+}) - 1(\text{반응한 } B^{3+}) = 31.5$ 이다.

따라서 $\frac{(\text{가})\text{의 수용액에 존재하는 } B^{b+} \text{ 수}}{(\text{가})\text{의 수용액에 존재하는 } A^{a+} \text{ 수}} \times x = \frac{4}{9} \times \frac{63}{2} = 14$ 이다.

이훈식 선생님

6월 모의고사
손글씨 해설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지구과학 I 총평

작년 6평과 비슷했다.

이것은 다른 과목에 비해 학생들 특히 고3 학생들이 지구과학1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지구과학1 특성상 학생들이 수능이 다가올수록 실력이 상승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결국 수능에서의 1등급 컷은 44 ~ 46정도로 예상됩니다.

비천체가 어려워지고, 천체는 쉬워졌다.

작년 6월 평가원과 마찬가지로 20번 문제는 천체 중에서 일주운동과 좌표계 단원에서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20번 문제에 비해 문제의 난이도는 높지 않았으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이미 기출로 출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도 높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비천체가 지엽적인 부분이나 자료 해석을 요하는 문제들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오답률 순위에 높은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1,2,3단원을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천체 킬러 문항에 대비해야 합니다.

비천체 - 지엽, 자료 해석 문제, 천체 고난이도 킬러 문항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과학탐구 이훈식 선생님

- 現) 대치 및 목동 다원교육 강사
- 現) 지구과학 '개념 Tech Tree' 저자
- 現) 강남대성학원& 대성마이맥 강사
- 現) 분당 명인학원 강사

제 4 교시

과학탐구 영역(지구 과학 I)

성명

수험 번호

1. 다음은 석회 동굴에 대하여 학생 A, B, C가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석회 동굴

(가) 대기 중의 이산화 탄소가 용해된 빗물이 지표에 스며들어 지하수를 형성한다.
(나) 지하수가 석회암을 용해시킨다.
(다) 석회 동굴 내부에서 ㉠鍾乳석과 ㉡석순이 만들어진다.

(가)에서 이산화 탄소가 용해된 빗물은 중성이다. (나)는 수권과 지권의 상호 작용이다. (다)의 ㉠은 강원도 백령 동굴에서 볼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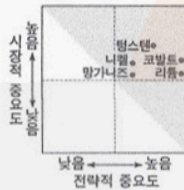
학생 A 학생 B 학생 C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A ② B ③ A, C ④ B, C ⑤ A, B, C

2. 그림은 2017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우리나라의 시장적 중요도와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지정한 5대 핵심 광물 자원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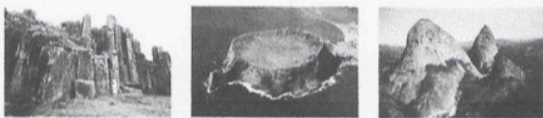


<보기>

- ㄱ. 니켈은 코발트보다 전략적 중요도가 높다.
ㄴ. 텅스텐은 제련 과정을 거쳐 이용된다.
ㄷ. 리튬은 2차 전지 제조에 이용되는 자원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3. 그림 (가), (나), (다)는 우리나라 지질 공원의 지질 명소를 나타낸 것이다.



(가) 무등산 주상 절리대 (나) 제주도 성산일출봉 (다) 전한 마이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 ㄱ. (가)의 암석은 중생대에 생성되었다.
ㄴ. (나)는 수성 화산 분출에 의한 응회구이다.
ㄷ. (다)의 암석은 바다에서 퇴적되어 생성되었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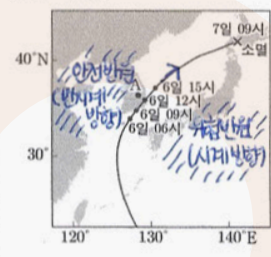
4. 다음은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와 그에 따른 풍향과 기압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 활동이다.

[탐구 과정]

- (가) 표를 이용하여 태풍의 이동 경로를 지도에 표시한다.
(나) 지점 A에서의 풍향 변화를 추정하여 기록한다.
(다) 관측 풍향을 조사하여 추정 풍향과 비교한다.
(라) 태풍 중심의 기압 변화량 (관측 당시 기압 - 생성 당시 기압)을 기록한다.

일시	태풍 중심		
	위도 (°N)	경도 (°E)	기압 (hPa)
6월 06시	33.8	127.3	975
6월 09시	34.7	128.1	975
6월 12시	35.8	129.2	985
6월 15시	37.2	130.5	985
7월 09시 (소멸)	42.0	141.1	990

[탐구 결과]



일시	추정 풍향	기압 변화량 (hPa)
6월 06시		-25
6월 09시		
6월 12시		
6월 15시		
7월 09시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 ㉠ 6월 06시에 태풍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 6월 06시부터 6월 15시까지 A의 관측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 이 태풍의 소멸 당시 중심 기압은 1보다 크다.

- ① ㉠ ② ㉡ ③ ㉠, ㉡ ④ ㉡, ㉢ ⑤ ㉠, ㉡, ㉢

- ① 자료 해석 문제 - 어려워 보여도 선지에서 필요한 정보만 찾으면 되는 문제!
② 태풍 문제 Tip - 물량 변화의 주체가 태풍인지 관측자인지 체크!

5. 그림은 주계열성인 외계 항성 S를 공전하는 5개 행성과 생명 가능 지대를 나타낸 것이다.

중심별로부터의 거리 (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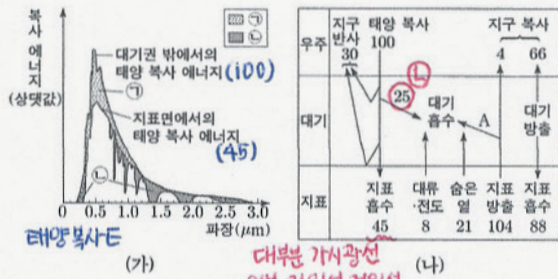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S의 광도는 태양의 광도보다 작다.
ㄴ. a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
ㄷ. 생명 가능 지대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지구가 a보다 짧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2. 그림 (가)는 지구에 입사하는 파장별 태양 복사 에너지의 세기를, (나)는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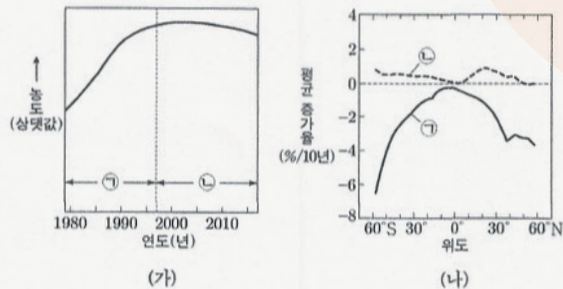
<보기>

- ㉠ (가)에서 지표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자외선 영역이 적외선 영역보다 적다. **자주해석!**
 ㉡ 성층권에 도달한 다량의 화산재는 ㉠을 감소시킨다. **증가**
 ㉢ ㉠은 A에 해당한다. **증가**

태양복사도에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사평형 문제 Tip - E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ex) 태양, 지표대기 어느 형태로 나오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 ex) 대류 전도 복사, 복사중에서도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13. 그림 (가)는 대류권의 염화 플루오린화 탄소(CFCs)의 연도별 농도를, (나)는 대기 중 오존의 위도별 평균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은 1979~1996년, ㉡은 1997~2016년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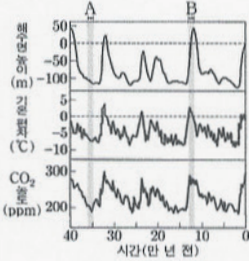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 ㉠ 성층권에 도달한 CFCs에서 분해된 염소 원자는 오존을 파괴하는 촉매로 작용한다.
 ㉡ (가)에서 CFCs 농도의 증가율은 ㉠ < ㉡이다.
 ㉢ (나)에서 ㉠의 오존 증가율 - ㉡의 오존 증가율은 55°S가 55°N보다 크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그림은 남극 빙하 연구를 통해 알아낸 과거 40만 년 동안의 해수면 높이, 기온 편차(당시 기온 - 현재 기온), 대기 중 CO₂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보기>

- ㉠ 빙하 코어 속 얼음의 산소 동위 원소비 (¹⁸O/¹⁶O)는 A가 B보다 크다.
 ㉡ 대륙 빙하의 면적은 A가 B보다 넓다.
 ㉢ CO₂ 농도가 높은 시기에 평균 기온이 낮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다음은 동일한 파장대를 관측할 수 있는 세 망원경에 대한 설명이다. **해설 우주망원경 > 가시광선망원경 > 적외선 망원경**

2021년에 발사 예정인 구경이 약 6.5m인 ㉠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구경이 약 2.4m인 ㉡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우수한 분해능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사용하면 구경이 약 10m인 ㉢ 하와이 ㉣ 망원경보다 더 먼 135억 광년까지의 천체를 연구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 ㉠은 천체로부터 오는 전파 영역을 관측할 수 있다.
 ㉡ ㉠의 집광력은 ㉡의 약 2.7배이다. **집광력 ∝ 면적 ∝ 구경²**
 ㉢ 천체를 관측할 때 ㉢은 ㉡보다 대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외선망원경 > 가시광망원경 > 적외선망원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전장반경 = 4AU
 $a^2 = p^2$ 이므로 $p = 8$ 년 (㉡)
 ㉠ = 24

16. 표는 어느 날 자정에 같은 고도에서 동시에 남중한 천체 A, B, C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A, B, C는 원일점에 있다.

	A	B	C
근일점 거리 (AU)	3	6	8
원일점 거리 (AU)	5	9	17
주기 (년)	8	...	...

주기 = 64년
 $a^2 = p^2$ 이므로
 공전 장반경 = 16AU
 ㉠ = 24AU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 ㉠ ㉠은 30이다. **이심률(e) = $\frac{r_2 - r_1}{r_2 + r_1}$ → A: 1/4, B: 1/3**
 ㉡ 이심률은 A가 B보다 작다.
 ㉢ 이날로부터 32년째 되는 날 자정에 A에서 C까지의 거리는 13AU이다. **C의 근일점 > 태양거리 + A의 원일점 > 태양거리**
 32년째 되는 날 A, C의 위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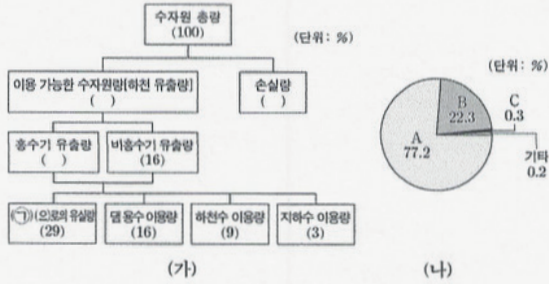
㉣) 이심률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근일점 ~ 태양까지의 거리와 원일점 ~ 태양까지의 거리의 비 $\frac{r_2 - r_1}{r_2 + r_1}$

* 케플러 법칙 문제 Tip - 장반경, 단반경, 근일점 ~ 태양까지 거리, 원일점 ~ 태양까지 거리 헷갈리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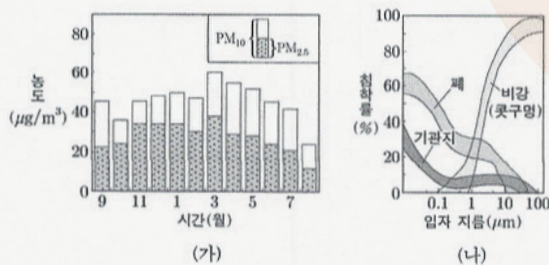
17. 그림 (가)는 우리나라 육지의 연평균 강수량을 이용하여 환산한 수자원의 현황을, (나)는 지구계 수권의 담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㉓는 바다이다.
 ㄴ. 홍수기 유출량이 총 이용량보다 많다.
 ㄷ. 우리나라에서 수자원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B이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8. 그림 (가)는 우리나라 어느 지점에서 PM_{10} 과 $PM_{2.5}$ 의 월별 질량 농도를, (나)는 호흡 기관에 달라붙는 입자의 지름별 침착률을 나타낸 것이다. PM_{10} 과 $PM_{2.5}$ 는 지름이 각각 $10\mu m$ 이하, $2.5\mu m$ 이하인 입자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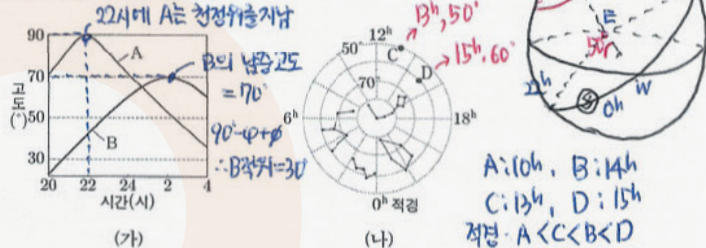
- <보기>
- ㄱ. $\frac{PM_{2.5} \text{ 농도}}{PM_{10} \text{ 농도}}$ 는 1월이 7월보다 크다.
 ㄴ. 지름이 $2.5 \sim 10\mu m$ 인 입자의 농도는 5월이 1월보다 크다.
 ㄷ. $PM_{2.5}$ 의 침착률은 기관지가 폐보다 낮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9.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9월 중 6일 간격으로 자정에 관측한 달의 위치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B의 달은 춘분날 관측한 것이고, 위상은 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기>
- ㄱ. A에서 달의 적경은 약 4° 이다.
 ㄴ. B의 달을 관측한 자정부터 6일째 되는 자정에 관측한 달 고도는 A에서 관측한 달 고도와 같다.
 ㉓. 달의 적위는 $A < B$ 이다.

- ① ㄱ ② ㉓ ③ ㄱ, ㄴ ④ ㄴ, ㉓ ⑤ ㄱ, ㄴ, ㉓
- Handwritten notes: $11^h 36^m$, $12^h - 4^m \div 2 \times 6\text{일} = 11^h 36^m$, $17^h 36^m$, $5^h 36^m$, $23^h 36^m$, 18° 적경, 6° 적경.

20. 그림 (가)는 $50^{\circ}N$ 지역에서 춘분날 관측한 두 별 A와 B의 시간에 따른 고도의 변화를, (나)는 북극성 주변의 두 별 C와 D의 위치를 적도 좌표계에 나타낸 것이다.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기>
- ㄱ. 적경은 $A < C < B < D$ 이다.
 ㄴ. 이날 새벽 1시경 고도가 가장 높은 별은 C이다.
 ㉓. $50^{\circ}S$ 지역에서 관측하면 전물성은 3개이다.
- Handwritten notes: 22° 에 A는 천정각을 지남, B의 남중 $25^{\circ} = 70^{\circ}$, $90^{\circ} - \phi + \delta$, B 적경 $= 30^{\circ}$, $A: 10^h, B: 14^h, C: 13^h, D: 15^h$, 적경: $A < C < B < D$, 적위: $B < A = C < D$, 50° , 30° , 50° , 60° , $90^{\circ} - \phi + \delta$.

- ① ㄱ ② ㉓ ③ ㄱ, ㄴ ④ ㄴ, ㉓ ⑤ ㄱ, ㄴ, ㉓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정수민 선생님

6월 모의고사
손글씨 해설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생물 I 총평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생명과학을 분석해보면 새로운 유형의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지 않아서 전년도 수능보다 약간 쉽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1등급컷이 원점수 45점, 2등급컷이 원점수 40점이니 고3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던 것 같네요. 복대립 유전 15번 문제, 가계도 19번 문제, 흥분의 전도 14번 문제, 중간 유전과 연관 17번 문제, 다인자 유전 10번 문제가 오답률이 높은 문제였는데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유전 문제와 흥분의 전도에서 막전위 변화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능시험까지 철저한 계획과 실천을 통해 난이도와 관계없이 안전한 1등급, 만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겠지요? 1단원, 3단원, 4단원에서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는 실수 없이 풀 수 있게 개념을 이해하고 철저하게 암기해 두고, 신경계와 근육 수축 등 제시 자료(그림, 도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연습을 하고, 어려운 문항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 출제되는 유전 문제는 정확하고 간결하게 푸는 연습을 해 두어야 합니다.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전 문항 해설 강의를 참고하기 바라고, 중간 유전과 복대립 유전, 다인자 유전, 가계도와 관련된 신유형 문제를 현강과 대성마이맥 인강에서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기 바랍니다.



과학탐구 정수민 선생님

- 서울대 생물교육과 졸업
- KAIST 생물공학과 석사
- 現) 다원교육 고등관 강사
- 現) 강남대성학원 전임강사

제 4 교시

과학탐구 영역(생명 과학 I)

성명

수험 번호

1. 그림은 식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C는 각각 핵, 세포벽, 소포체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A는 동물 세포에도 존재한다.
 ㉡. B에는 히스톤이 들어 있다.
 ㉢. C의 구성 성분에는 셀룰로스가 포함된다.

① ㉠ ② ㉡ ③ ㉠, ㉡ ④ ㉡, ㉢ ⑤ ㉠, ㉡, ㉢

2. 표 (가)는 생명체에 있는 물질 A~C에서 특징 ㉠~㉢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C는 물, 단백질, 인지질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물질	특징	㉠	㉡	㉢
A	○	○	○	×
B	○	○	○	○
C	×	○	○	×

(가)

특징(㉠~㉢)

- ㉠. 펩타이드 결합이 존재한다.
- ㉡. 구성 원소에 수소가 있다.
- ㉢.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다.

(나)

(○: 있음, ×: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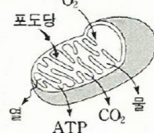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A는 인지질이다.
 ㉡. B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다.
 ㉢. ㉢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다.'이다.

① ㉠ ② ㉡ ③ ㉢ ④ ㉠, ㉡ ⑤ ㉠, ㉢

3. 그림은 사람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미토콘드리아에서 이화 작용이 일어난다.
 ㉡. ATP의 구성 원소에는 인(P)이 포함된다.
 ㉢. 포도당이 분해되어 생성된 에너지의 일부는 체온 유지에 이용된다.

① ㉠ ② ㉡ ③ ㉠, ㉡ ④ ㉡, ㉢ ⑤ ㉠, ㉡, ㉢

4. 표는 식물의 구성 단계의 일부와 예를 나타낸 것이다. I~III은 각각 기관, 조직, 조직계 중 하나이다.

구성 단계	예
I	뿌리
II	④ 관다발 조직계
III	⑤ 해면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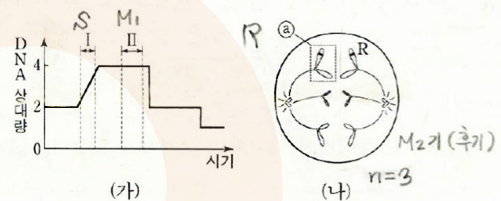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열매는 I의 예에 해당한다.
 ㉡. ④에는 물관이 있다.
 ㉢. ⑤는 표피 조직계에 속한다.

① ㉠ ② ㉡ ③ ㉠, ㉡ ④ ㉡, ㉢ ⑤ ㉠, ㉡, ㉢

5. 그림 (가)는 어떤 동물($2n=6$)의 세포가 분열하는 동안 핵 1개당 DNA 양을, (나)는 이 세포 분열 과정의 어느 한 시기에서 관찰되는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동물의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은 Rr이며, R과 r는 대립 유전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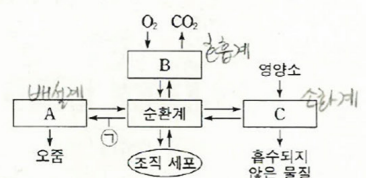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3점]

<보 기>

㉠. ㉠에는 R가 있다.
 ㉡. 구간 I에서 2가 염색체가 관찰된다.
 ㉢. (나)는 구간 II에서 관찰된다.

① ㉠ ② ㉡ ③ ㉢ ④ ㉠, ㉡ ⑤ ㉠, ㉢

6. 그림은 사람 몸에 있는 순환계와 기관계 A~C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A~C는 각각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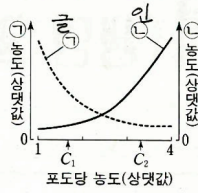
㉠. ㉠에는 요소의 이동이 포함된다.
 ㉡. B는 호흡계이다.
 ㉢. C에서 흡수된 물질은 순환계를 통해 운반된다.

① ㉠ ② ㉡ ③ ㉠, ㉡ ④ ㉡, ㉢ ⑤ ㉠, ㉡, ㉢

2 (생명 과학 I)

과학탐구 영역

7. 그림은 정상인의 혈중 포도당 농도에 따른 ㉠과 ㉡의 혈중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과 ㉡은 각각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 ㉠은 이자의 α 세포에서 분비된다. 잔외사상하부
 ㉡ ㉡의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는 연수이다.
 ㉢ 혈중 인슐린 농도는 C_2 일 때가 C_1 일 때보다 높다.
- ① ㉠ ② ㉡ ③ ㉠, ㉡ ④ ㉡, ㉢ ⑤ ㉠, ㉡, ㉢

8. 표는 같은 종인 동물($2n=6$) I의 세포 (가)와 (나), II의 세포 (다)와 (라)에서 유전자 ㉠~㉣의 유무를, 그림은 세포 A와 B 각각에 들어 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 동물 종의 특정 형질은 2쌍의 대립 유전자 H와 h, T와 t에 의해 결정되며, ㉠~㉣은 H, h, T, t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I과 II의 세포 중 하나이고, I과 II의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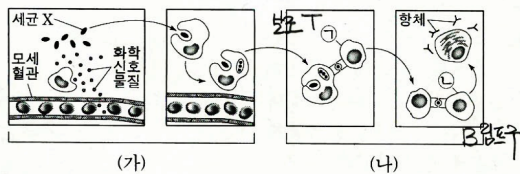
유전자	I의 세포		II의 세포	
	(가) ㉠ (나) ㉡	(다) ㉢ (라) ㉣	(가) ㉠ (나) ㉡	(다) ㉢ (라) ㉣
㉠	×	○	×	×
㉡	×	×	×	○
㉢	○	○	×	○
㉣	○	○	○	×

(○: 있음, ×: 없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3점]

- <보기>
- ㉠ ㉠은 ㉢과 대립 유전자이다.
 ㉡ A는 II의 세포이다.
 ㉢ (라)에는 X 염색체가 있다.
- ① ㉠ ② ㉡ ③ ㉠, ㉢ ④ ㉡, ㉢ ⑤ ㉠, ㉡, ㉢

9. 그림 (가)와 (나)는 어떤 사람이 세균 X에 처음 감염된 후 나타나는 면역 반응을 순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과 ㉡은 B 림프구와 보조 T 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기>
- ㉠ (가)에서 X에 대한 비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 ㉡는 가슴샘(흉선)에서 성숙되었다.
 ㉢ (나)에서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 ① ㉠ ② ㉡ ③ ㉢ ④ ㉠, ㉢ ⑤ ㉡, ㉢

10.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 (가)를 결정하는 3개의 유전자는 각각 대립 유전자 A와 a, B와 b, D와 d를 가진다.
-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이 대립 유전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 (가)의 유전자형이 AaBbDd인 부모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의 표현형은 최대 5가지이다.
- 감수 분열 시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나 ㉠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난자가 형성되었다. ㉠과 정상 정자가 수정되어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는 자녀 1과 2 중 한 명이다. 이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 표는 이 가족 구성원 중 자녀 1과 2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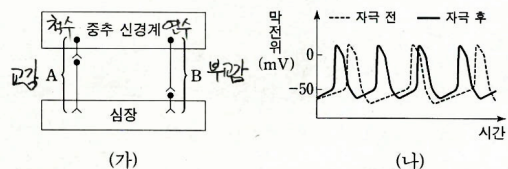
구성원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
자녀 1	4
자녀 2	7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제시된 염색체 비분리 이외의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 <보기>
- ㉠ (가)의 유전은 다인자 유전이다.
 ㉡ 아버지에서 A, B, D를 모두 갖는 정자가 형성될 수 있다.
 ㉢ ㉢의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났다.

- ① ㉠ ② ㉡ ③ ㉠, ㉢ ④ ㉡, ㉢ ⑤ ㉠, ㉡, ㉢
- ㉠ Aa Bb Dd ㉡ Aa Bb Dd
- ㉢ bld bld
- ⑤ ㉡

11. 그림 (가)는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자율 신경 A와 B를, (나)는 A와 B 중 하나를 자극했을 때 심장 세포에서 활동 전위가 발생하는 빈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 A는 말초 신경계에 속한다. 연수
 ㉡ B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 세포체는 척수에 존재한다.
 ㉢ (나)는 A를 자극했을 때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⑤ ㉠, ㉡, ㉢

12. 다음은 사람의 항상성에 대한 학생 A~C의 발표 내용이다.

체온이 떨어지면, 교감 신경이 작용하여 피부의 모세 혈관이 이완(확장)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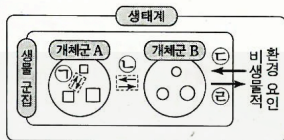
땀을 많이 흘리면, 항이노 호르몬(ADH)이 작용하여 콩팥에서의 수분 재흡수가 촉진됩니다.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TSH)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A ② B ③ A, C ④ B, C ⑤ A, B, C

13.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스라소니가 눈신토끼를 잡아먹는 것은 ㉠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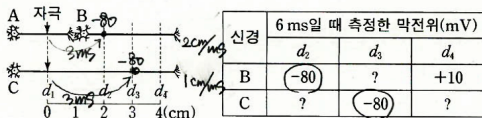
ㄴ. 분서는 ㉡에 해당한다.

㉢.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 토양의 암모늄 이온(NH_4^+)이 증가하는 것은 ㉡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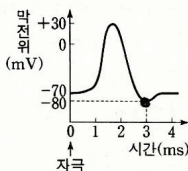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 ⑤ ㄱ, ㄴ, ㉢

14. 다음은 민말이집 신경 A~C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이다.

○ 그림은 A와 C의 지점 d_1 으로부터 세 지점 $d_2 \sim d_4$ 까지의 거리를, 표는 ① A와 C의 d_1 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6ms일 때 $d_2 \sim d_4$ 에서 측정된 막전위를 나타낸 것이다.



- B와 C의 흥분 전도 속도는 각각 1cm/ms, 2cm/ms 중 하나이다.
- A~C 각각에서 활동 전위가 발생하였을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위 변화는 그림과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 C에서 흥분의 전도는 각각 1회 일어났고, 휴지 전위는 -70mV이다.) [3점]

<보 기>

ㄱ. d_1 에서 발생한 흥분은 B의 d_4 보다 C의 d_4 에 먼저 도달한다.

ㄴ. ㉠이 4ms일 때, C의 d_3 에서 Na^+ 이 세포 안으로 유입된다.

㉢. ㉠이 5ms일 때, B의 d_2 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① ㄱ ② ㄴ ③ ㉢ ④ ㄱ, ㄴ ⑤ ㄴ, ㉢

15. 다음은 어떤 동물의 몸 색 유전에 대한 자료이다.

- 몸 색은 상염색체에 있는 1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며, 대립 유전자에는 A, B, D, E가 있고, 각 대립 유전자 사이의 우열 관계는 분명하다.
- 몸 색의 표현형은 4가지이며, 갈색, 회색, 검은색, 붉은색이다.
- 유전자형이 AD인 개체와 BD인 개체의 몸 색은 서로 같고, 유전자형이 AE인 개체, BB인 개체, BE인 개체는 몸 색이 각각 서로 다르다.
- 회색 몸 암컷과 검은색 몸 수컷을 교배하여 자손(F_1) 800개체를 얻었다. 이 자손의 표현형에 따른 비는 검은색 : 붉은색 = 1 : 1이다.
- 갈색 몸 암컷과 붉은색 몸 수컷을 교배하여 자손(F_1) 800개체를 얻었다. 이 자손의 표현형에 따른 비는 회색 : 갈색 = 2 : 1 : 1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3점]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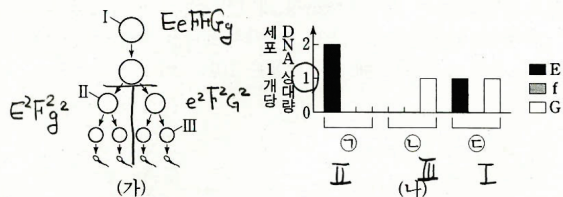
ㄱ. ㉠의 몸 색은 갈색이다.

ㄴ. ㉡의 유전자형은 AB이다.

㉢. ㉢의 수컷과 유전자형이 DE인 암컷을 교배하여 자손(F_1)을 얻을 때, 이 자손이 붉은색 몸을 가질 확률은 $\frac{1}{4}$ 이다.

① ㄱ ② ㄴ ③ ㉢ ④ ㄱ, ㉢ ⑤ ㄴ, ㉢

16. 사람의 유전 형질 ③은 3쌍의 대립 유전자 E와 e, F와 f, G와 g에 의해 결정되며, ③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3개의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그림 (가)는 어떤 사람의 G_1 기 세포 I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는 이 사람의 세포 ㉠~㉢이 갖는 대립 유전자 E, e, F, G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은 I~III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II는 중기의 세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으며, E, e, F, G, g 각각의 1개당 DNA 상대량은 같다.) [3점]

<보 기>

ㄱ. I에서 세포 1개당 E의 DNA 상대량 + G의 DNA 상대량은 F의 DNA 상대량 1이다.

ㄴ. II의 염색 분체 수는 23이다.

㉢. III은 ㉡이다.

① ㄱ ② ㄴ ③ ㉢ ④ ㄱ, ㄴ ⑤ ㄴ, ㉢

4 (생명 과학 I)

과학탐구 영역

17. 다음은 어떤 식물 종에서 유전자형이 AaBbDdEe인 개체 P1과 P2의 유전 형질 ①~④에 대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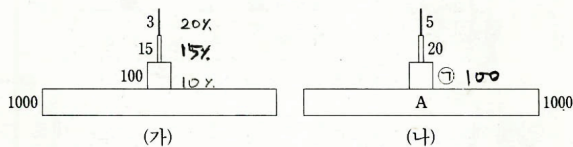
- ①은 대립 유전자 A와 a에 의해, ②는 대립 유전자 B와 b에 의해, ③은 대립 유전자 D와 d에 의해, ④는 대립 유전자 E와 e에 의해 결정된다.
- ①~④ 중 2가지 형질은 각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가 소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나머지 2가지 형질은 각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 사이의 우열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각각 3가지 유전자형에 따른 표현형이 모두 다르다.
- P1을 자가 교배하여 얻은 ① 자손(F₁) 1600 개체의 표현형은 9가지이고, 이 개체들에서 유전자형이 aaBBddee인 개체와 AaBBddee인 개체가 있다.
- P2를 자가 교배하여 얻은 ② 자손(F₁) 1600 개체의 표현형은 9가지이고, 이 개체들에서 유전자형이 aaBBddee인 개체와 AaBBddee인 개체가 있다.
- ③에서 유전자형이 AaBBddee인 개체와 ④에서 유전자형이 AaBBddee인 개체를 교배하여 ⑤ 자손(F₁)을 얻을 때, 이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⑤의 표현형의 최대 가짓수는 ⑦의 표현형의 최대 가짓수보다 많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3점]

- <보기>
- ㄱ. ①에서 A와 d는 연관되어 있다.
 - ㄴ. ③은 유전자형에 따른 표현형이 모두 다르다.
 - ㄷ. ⑤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8가지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18.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서로 다른 생태계에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의 에너지량을 상댓값으로 나타낸 생태 피라미드이다. (가)에서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15%이고, (나)에서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1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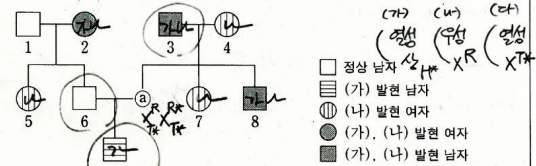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에너지 효율은 전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에 대한 현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 <보기>
- ㄱ. A는 3차 소비자이다.
 - ㄴ. ①은 100이다.
 - ㄷ. (가)에서 에너지 효율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증가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9.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다)에 대한 자료이다.

- (가)는 대립 유전자 H와 H*에 의해, (나)는 대립 유전자 R과 R*에 의해, (다)는 대립 유전자 T와 T*에 의해 결정된다. H는 H*에 대해, R는 R*에 대해, T는 T*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이다.
-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 중 하나만 X염색체에 있다.
- (다)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고, (다)는 열성 형질이다.
- 가계도는 구성된 ①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 1~9에게서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 ①을 제외한 나머지 1~9 중 3, 6, 9에서만 (다)가 발현되었다.
- 체세포 1개당 H의 DNA 상대량은 1과 ②가 서로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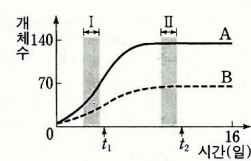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으며, H와 H* 각각의 1개당 DNA 상대량은 1이다.)

- <보기>
- ㄱ. (가)는 우성 형질이다.
 - ㄴ. ③에서 (다)가 발현되었다.
 - ㄷ. 9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다)가 모두 발현될 확률은 1/4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20. 그림은 먹이의 양이 서로 다른

두 조건 A와 B에서 종 ①을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먹이의 양은 A가 B보다 많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3점]

- <보기>
- ㄱ. 구간 I에서 증가한 ①의 개체수는 A에서 B에서보다 많다.
 - ㄴ. A의 구간 II에서 ①에게 환경 저항이 작용한다.
 - ㄷ. B의 개체수는 t₂일 때가 t₁일 때보다 많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수능 D-100 대비 공부법

[국어] 심훈 선생님 전재림 선생님

[수학] 맹룡 선생님 김은석 선생님

[영어] 셴티 선생님 강원우 선생님

-SUB. " 6월 국어 점수에 실망한 K에게 "



심 훈 선생님께 묻습니다.—

심 훈T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現) 다원교육 고등본관 국어팀장
- 現) 모든 것을 능가하는 국어 대표
- 現) 강남하이퍼(이투스) 재수종합반
- 前) 김영준국어논술전문학원 고등팀장

심 훈



Q1

심훈 선생님께:

문법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A1

문법은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2019학년도 수능의 '바투-발게' 문제를 떠올려 보자. 이 문제가 어휘 문제가 아니라 어미와 접사의 구분 요구하는 문제다. 이처럼 문제의 취지를 모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국 틀린다.

2013년 정도부터 지금까지의 평가원 문법 문제를 펼쳐놓고 소제목을 한번 붙여보길 바란다. '용언의 불규칙 활용', '어미-접사의 구분' 등으로 제목을 붙이며 문제를 풀어본 뒤 자기가 붙인 제목이 정확했는지 반성해본다면, 자연스럽게 문제의 취지를 파악하는 실력도 늘고 풀이시간도 줄일 수 있다.

Q2

심훈 선생님께:

사설 모의고사
꼭 풀어야 할까요?

A2

그렇다! 풀자! 한 번만 풀지 말고 두 번 풀자!

'국어 강사니 당연히 풀자고 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좀 서운하다. 일단 강사들에게 사설 모의고사는 골칫거리다. 학생들에게 교재비를 건어서 모의고사 회사에 모두 가져다 드려야 하고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심지어 반품을 안 받아 준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사설 모의고사를 쓰는 것은 1% 확률로 본전이요, 99% 손해다. (나만 흑우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수능 국어 시스템에서는

사설밖에 답이 없으니 풀라고 하는 것이다. 2016년 6월부터 수능 국어가 확 바뀌었다. 비문학 지문이 길어지고 어려워지고, 문법 지문이 출제되고, 확실한 EBS연계가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 2016년 6월 이전의 기출과 이후의 기출의 괴리가 너무 커져버린 것이다. 그래서 기출을 마르고 닳도록 풀어도 실전에 전혀 적응이 안 된다. 그런데 단행본 문제집을 만드는 이른바 대형 출판사들이 수능국어의 변화에 전혀 대응을 못했다. 이제야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늦어도 너무 늦어버렸고, 그 사이 사설 모의고사들은 '눈부신' 발전을 했다.

사설 모의고사를 통해, 첫째 EBS에 실린 작품의 미수록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 6월에 출제된 '유원십이곡'과 '조웅전'을 떠올려보라. 결국 EBS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서 출제된 문제가 오답률이 높다.

둘째, 사설 모의고사는 비문학의 소재를 EBS에서 연계하면서도 최신 경향에 맞는 문제를 내고 있다. 게다가 문제의 질이 결코 무시 못할 수준이다. (많아 팔아서 투자하고 더 많아 팔아서 또 투자하나 문제는 좋아진다!!) 최신 경향에 맞으면서도 낯선 글을 읽어보고 싶다면 사설밖에 없는 상황이다.

셋째, 말 그대로 모의고사로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다. 즉 수능만큼의 인지 부담을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 연습을 확실히 할 수 있다. 출판사에서 나온 문제집을 풀어보면 그게 EBS에 대한 복습의 효과는 있을지언정 '모의고사'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80분이 뽀뽀하고 등급컷이 80점 중 반이 되면서 틀렸을 때 수급이 되는 '세트'가 모의고사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문제를 내기가 쉽지 않다. 사설 모의고사 회사들이 경험을 쌓으면서 모의고사로서 가치가 있는 세트를 내놓고 있다.

Q3

심훈 선생님께:

그렇다면 뭘 풀까요?

E vs S?

A3

E모의고사 : 최고의 점유율답게 완성도가 매우 높다. 내용상 단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일부 정산 나간 재수생들이 6월을 보고 E스럽자 않다고 했다고 할 정도...) 9월 대비 모의고사에서 수능완성 작품들을 대거 반영하는 등 시의성도 높다. 즉 학습 일정 /스케줄 관리 차원에서도 훌륭하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설 초기와 비교해 볼 때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문제가 없다. 완성도와 참신함을 동시에 갖기는 어려운 법이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가격 및 끼워팔기 등 상업적 측면에서 보자면 테러 수준이다! 나는 흑우다...)

S모의고사 : 내용만 놓고 보자면 낮은 점유율이 의아할 정도다. 현재 점유율 차원에서는 E모의고사와 비교가 안 되지만, 내용에서 보자면 E모의고사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 특히 '문제'만 보면 120점을 주고 싶다. 솔직히 E모의고사보다 풀어보면 재미있다. 그런데 지문 선정이 특정 영역으로 다소 편향돼 있고 글을 다듬지 않고 실는 경우가 있다. 앞서 말했듯 모의고사로서의 가치는 종합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E와 S, 둘 중 하나를 풀면 된다. 어느 것을 선택해도 그 선택 때문에 대학에 가고 못 가고 할 일은 결코 없을 듯하다. 기타 모의고사들이 있는데, 대부분 '모의고사'로서의 가치는 없다. 다만 올해 출시된 모의고사가 하나 있는데, 수능 1세대 교·강사들이 출제해서 그런지 매우 탄탄하다. 특히 문학 지문을 선정하는 안목이나 문제의 깔끔함은 교육청 모의고사의 수준 이상이다.

앞서 말했듯 한 회사의 모의고사를 꾸준히 푸는 것은 학습 일정을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푸는 것보다는 하나를 꾸준히 푸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모의고사를 한두 회씩 경험해보면 좋겠다. 특히 재수생들은 남는 시간에 기출만 마르고 닳도록 풀지 말고 사설 모의고사에 투자를 해보길 권유한다.

전재림 선생님께 묻습니다. —

전재림T

- 現) 다원교육 고등관 강사
- 現) 대치이강학원 강사
- 現) 분당대찬학원 강사
- 現) 오르비 클래스 강사



Q1

전재림 선생님께:

수능 D-100일 기간
중에서 특별히 공부해야하는
국어영역이 있을까요?

A1

100일은 달리 생각하면 9월 평가원이 한 달쯤 남은 시점이 됩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9월 평가원을 수능처럼 생각하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라는 점입니다. 9월 평가원이 수능이라 생각하면 열핏, 너무 적은 시간이 남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점을 이용하여 국어영역에서 반드시 해야 하지만 끝끝내 미루어둔 것들을 해결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 찢찢함을 벗어던질 수 있도록 EBS의 고전작품을 총정리한다든지, 문법의 취약 단원을 최종점검 하여 끝낸다든지요:) 문학도 제가 고전을 예시로 들었지만, 개인별로 취약한 장르의 작품들을 마음먹고 정리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화법과 작문의 경우, 본인의 현재 성적이 어디쯤 이건 상관없이 누구나 다 맞아야 하는, 다 맞을 수 있는 영역이므로 실수가 잦은 학생들은 5개년 평가원 기출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어떤 식의 출제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 9월 평가원 대비에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Q2

전재림 선생님께:

시험지를 풀 때, 화작문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A2

화법과 작문은 A1에서 언급한 것처럼,
'누구나 다 맞아야 하는, 다 맞을 수 있는 영역' 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화법과 작문은 흔히들 얘기하는 '양치기'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영역입니다. 평가원 5개년 +교육청 5개년 기출을 기반으로(총 35회차가 되겠네요) 기본적인 출제유형을 완전하게 익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고난도 파트가 아니다보니, '개념'이라는 것이 가장 등한시 되는 파트 같지만 각각 '화법'과 '작문', 그리고 이들의 '융합' - 말은 융합이지만 사실 (가)에 화법, (나)에 작문을 배치한 것과 같으므로 신유형은 아닙니다. -이 무엇을 포인트로 삼아 출제되는지 출제 기조를 파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저는 2009 교육과정과 평가원 출제 매뉴얼에 근거하여 이를 크게 정보전달과 설득의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유형화하고 이것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분석하는 것을 개념수업으로 진행했습니다. 화법과 작문이 어려웠다고 하는, 2019학년도 6월 평가원과 2019학년도 수능을 다른 회차와 비교 분석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화법과 작문은 신유형의 등장이라기보다 '정보량'의 조절을 통해 수험생으로 하여금 시간을 많이 쓰게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빨리 풀어내겠다는 강박이 실수를 부르지 않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길 추천하며 아울러, 2020학년도 6월 평가원의 5번과 1번이 가져다 준 교훈도 잊지말아야 합니다. 5번은 <보기>와 지문 중 무엇이 선행된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친구들이 시간을 많이 쓰거나, 답을 찾지 못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반드시 제시문과 문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10번의 악마 같은^^; 디테일도 잊지 맙시다. 자료의 적용뿐만 아니라, 사실성도 화법과 작문의 출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Q3

전재림 선생님께:

문학작품 개념어 정리를
어떻게 해야 낯선작품 만났을때
안떨 수 있을까요?

A3

사실,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평가원 기출에서 만나게 되는 문학작품의
개념어는 그리 새로운 것들이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표현상 특징을 지칭하는 개념어들도 결국 다 중학교 때부터 학습 해 온 것들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문학 개념어를 모른다는 것에 있지 않고, 주어진 작품에서 문학 개념어에 관련된 '시어' 혹은 소설의 '구절'을 바로바로 찾아내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당연히 기출문제를 (최소 10개년) 분석해보면서 어떠한 시어를 어떠한 문학적 개념어로 표현하고 있는지 틀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학습이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 기출, 사설 모의고사에 까지 확장시켜가면서 '객관적'인 문제풀이가 가능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여기서 '객관적'이라 함은, 감으로 푸는 것이 아닌 선지와 시어를 1:1 대응 시킬 수 있는 근거 찾기에 기반한 문제풀이를 뜻합니다.

Q4

전재림 선생님께:

고전문학 작품을 읽을 때마다 머리가 굳어버립니다. 고어를 모두 암기해야 할까요?

A4

고전시가 필수어휘는 당연히 암기해야 합니다.

최근의 평가원 기출들은 고어를 모두 현대어로 풀이해서 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수어휘들을 암기한 후에, 올해 EBS에 실린 작품들을 스스로 현대어로 풀이해가며, 모르는 단어들에 대해 추가적인 암기를 더해준다면 시험장에서 모르는 단어로 고생하는 일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작품의 일부분만 실린 고전시가의 경우, 전문 해석을 함께 하면 미수록 파트가 출제되더라도 무리없이 문제풀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암기가 아니라 일단 생소한 작품들 위주로 현대어 풀이를 해보고 이를 교과서 풀이와 대조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해석해 본 후에 잘못된 해석을 교정하는 것이 수능 때까지 잊지 않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덧붙여, 시가 문학의 핵심은 필수적 고어를 비롯한 작품 속 상황, 화자가 드러내는 심리와 태도, 이와 직결되는 표현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출제 원리는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어를 내신 대비하듯 하나하나 외우는 것보다 작품의 핵심 흐름을 파악하며 끝까지 읽어내는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어영역, 특히 어렵고 1교시의 압박이 상당한 과목임을 강사인 저도 매 수업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놀랍고 신비한 독해 방법을 찾아 헤맨다거나 그걸 찾는다 한들 단박에 해결될 과목도 아닙니다.

수업시간에 제가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답률과 시간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정답률'을 먼저 올리고 (다시 말해, 지문을 이해하고 제대로 풀어내는 능력을 먼저 갖춘 후에)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적절한 시간 관리 전략을 세워 이를 숙달시키는 순서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스타일이란 문학을 먼저 풀 것인가, 독서를 먼저 풀 것인가 하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피지컬'을 키우세요. 최근 수능 국어시장의 트렌드가 사설모의고사와 리트에 맞추어져 있는 이유도 다, '피지컬'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고난도 지문으로 반복 연습하여 19수능과 같이 극악무도한 난이도의 시험에서도 버텨내고자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여겨집니다. 저 또한 수업에서 리트와 사관학교/경찰대 기출, 사설 모의고사까지 수업 제재로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의 실전적인 '피지컬'을 키워드리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부드릴 것은, 15분 걸려서 다 풀어내야 할 지문이면, 15분을 투자해야 다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12분 시간 맞추고 빠르게 읽는다고 해서 갑자기 시간이 줄어들 리 만무합니다. 리트와 사설모의고사, 기출 외의 그 무엇이 되었든 단순 양치기로는 절대 키워지지 않습니다.

Q5

전재림 선생님께:

사설모의고사와 기출문제를
병행해서 풀어도 괜찮을까요?

A5

병행은 당연히 좋습니다. 다만 본인의 성적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합니다.

3등급 중반 이하의 학생들은 사설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야 합니다. 아직 안정적인 상위권 성적이 되기 이전에 사설부터 푸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것이 9월 이후일지라도 위험합니다. 3등급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기출에 대한 분석과 그에 걸맞는 독해력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지금(8월)은 과제로 모의고사를 부여하고, 이를 실전에서 해설하되 항상 기출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출에 대해 최소 1-2회독 이상 학생들이 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고난도 기출/ 꼭 다시 봐야할 기출을 선별하여 사설과 더불어 완벽하게 복습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시중에 출판되는 사설모의고사는 대개 기출의 출제 포인트와 지문 서술 방식을 철저하게 반영하여 문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새로운 문항을 풀고 해설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기출을 어떻게 복습해야 하는지, 그리고 EBS를 반영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연계 작품을 어떻게 학습 및 정리해 나갈 것인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하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학생들도 이에 입각하여 학습을 진행하길 권장합니다. 또한, '실전'모의고사이므로 실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글을, 작품을 읽어나가고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지 자기만의 루틴을 확립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맹룡 선생님께 묻습니다.—

맹룡T

- KAIST 수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조기졸업
- 現) 다원교육 고등본관 강사
- 前) 대원외고 출강
- 前) 시대인재 강사



Q1

맹룡 선생님께:

주변에서 EBS 거르고 풀라는데,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을 꼭
풀어야 할까요?

A1

EBS를 거르고 풀라고 하는 얘기는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에 있는 몇 안 되는 문제들 때문입니다.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의 문제 중 계산이 너무 많거나, 심하게 복잡한 문제는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는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자료(교재/숙제/TEST)에 역대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문제 중 우수 문항들만 발췌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합니다. 일부 계산이 복잡한 문제들만 빼면, 그래도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은 본인의 현재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문제집 중 하나입니다.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모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에 한 번씩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Q2

맹룡 선생님께: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이과수학 3등급을 받았습니다.
수능까지 등급업이 가능할까요?

Q3

맹룡 선생님께:

남은시간, 효율적으로 수학
실력을 높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2

당연히 가능합니다. 어느 모의고사에서든 3등급이라는 점수는,
해당 단원의 대표 유형 문제들을 모두 맞힌 것이 아닙니다.

기본 개념을 다시 다잡고, 기출문제들(킬러 문항 제외)을 다시 공부하세요.
너무 어려운 것(21번/30번 난이도)은 말고, 그 아래 난이도의 문제들을 다 맞
히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세요. 실수 없이, 21번/30번만 틀리고 92점이면 1등
급도 가능합니다.

A3

고3은 “복습”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잘 정리해서 정해진 시험 시간 안에 정확하고 빠르게 쏟아
내는 연습을 하세요. 수학 전 범위에 걸친 개념 잘 정리하시고, 매주 Final 모의
고사 1회씩 풀면서 100분 시간 관리 연습하시고, 틀린 문제는 꼼꼼히 다시 풀
어보며 복습하세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혼자 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
니, 어려운 문제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풀다가 막히면 선생님에게 질문하
고 배우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세요. 흔히들, “고3은 혼자 정리하는 시간이 필
요하다.”, “너무 학원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들 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
다. 당연히 학생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무엇을 어떻
게 효율적으로 정리할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노를 젓지 않으면 배는 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쉬지 않고 저어야 배는 나아갑
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모른 채, 무작정 노를 저으면 목표에서 멀어
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를 저어야 목표에 효율
적으로 잘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문제 하나를 풀어도 어떤 것을 풀어
야 하는지, 공부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하는지, 날씨가 다가옴에 따라 하루하루
를 어떻게 충실히 보내야 하는지, 맹룡 선생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배우고 익
혀, 시험장에서 남김없이 다 쏟아냅니다!^^

김은석 선생님께 묻습니다. —

김은석T

-서울대학교 공대 졸업
-現) 다원교육 고등관 강사
-前) 시대인재 수학교육 대표강사
-“최상위권을 위한 내신 간담회”연사



곧 2020학년도 수능시험입니다.

아직 고1, 2 학생들에게는 체감이 전혀 되지 않죠?

사실 고1, 2 학생들에게는 당장의 내신 시험이 발등의 불이자, 자신의 수능일 것입니다. 실상 수능은 내신이라는 물줄기들이 모여 만들어진, 큰 강이라 보면 됩니다. 지금 연습하고, 익힌 많은 문제들이 입시의 결과를 만들어내죠. 내신이 탄탄해야, 깊고 넓은 강을 만들어 냅니다. 모든 과목이 동일하겠지만, 수학이란 과목은 가장 깊이를 만들어내기가 힘들고, 완성해 내기가 힘든 과목입니다. 깊이를 만든다는 것은 해당 과정의 이론 정리에 해당하고, 완성을 해낸다는 것은 그 이론을 통해 문제의 해결력을 갖춘다는 뜻입니다.

본인의 깊이를 만드는 것에 소홀하면, 좋은 수업과 문제들을 아무리 많이 봐도 결국은 넘쳐흘러 본인에게 담기게 되는 양이 적게 되고, 더 부어봐야 넘쳐 흘러버립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 이론 정리에 소홀하고, 문제를 푸는 것에 급급하여 그 결과에 한숨을 쉽니다. 본인만의 이론 정리 노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익혀왔던 수많은 공식과 문제 예시들이 정리되어 있는 노트가 있나요?

타 과목은 요약본이다, 요점 정리다 하여 많은 정리된 책자들이 서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그렇지 않죠. 그만큼 내용이 방대하고 끊임 없이 누적되어 가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스로 각 단원들의 내용을 정리하고, 끊임없이 그 정리된 노트를 채워 나가야 합니다. 계속 그 깊이를 더해간다는 것은 이전의 많은 이론들이 다음 단원의 이론들로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지 정리해 나간다는 뜻이기에, 망각의 동물인 우리는 그것을 기록하고 다시 보며 복습을 해나가야 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 한다는 도함수 단원을 생각해 봅시다. 도함수의 활용문제는 쑥쑥 풀어내는 학생들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한 진위판별 문제에서는 픽픽 쓰러집니다. 제대로 된 이론 정리 보다는 문제 유형을 외워버린 것이죠. 푸는 방법만을 기억하고, 무엇에서 그 해결 방법이 유도 되었는지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근원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끊임 없이 추약할 뿐이죠.

이론 정리는 수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남이 해 줄 수 없는 오롯이 본인이 정리해야만 하는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쉬운 시작입니다.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넘쳐나는 문제의 풍년에 즐거워 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누적된 모의고사와 수능문제, 내신 기출문제, 유형별 문제집들이 넘쳐 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이미 풀어 봤다는 문제집이 3권을 넘는데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몇 권을 풀어도, 늘 맞추는 문제만 맞추고 어려워 하는 유형은 그대로인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학생들의 실력과 성적이 나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건 바로 오답 정리입니다.**

문제의 해결력의 시작은 본인이 강한 유형과 부족한 유형을 정확히 판단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며,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전교 1등을 한다는 그 어떤 학생을 보든, 그 학생은 본인만의 오답노트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1등과 2등의 차이는 그 오답노트에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을 쏟았느냐에 판가름됩니다. 1등은 본인이 틀린 문제외, 해당하는 유형의 유사문항을 반드시 풀어봅니다.

누구나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여, 강하게 만드느냐가 바로 수학의 완성입니다. 모두가 같은 내용을 배우고, 같은 문제로 시험을 봅니다. 가장 공정하며,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학문이 수학입니다.



본인이 한번 체크해보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정리 해봅시다.

- 01 나는 수업을 들을 때 항상 판서되는 내용을 노트에 정리한다.
 - 02 노트에 정리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며, 본인만의 이론정리 노트를 만들고 있다.
 - 03 정리된 나의 노트를 지참하고, 항상 문제를 풀 때 참조한다.
-
- 01 나는 문제집을 한번 풀면 반드시 그 문제집에서의 오답을 정리한다.
 - 02 그 오답들이 노트에 정리되어 있다.
 - 03 정리된 오답에 대한 유사문항을 최소 1문항 이상은 꼭 풀어본다.

위 여섯 내용에 대하여 모두 **3번에 해당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상위권 학생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만약 3번까지 가지 못했다면, 본인의 성적이 왜 현재 상황인지 깨닫았으리라 역시 확신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이더라도,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보는 문제들과 학원에서 보는 문제들. 그리고 수많은 과제들. 결코 적지 않은 문제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량과, 본인의 수학능력 이는 분명 성적에 영향이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와 그 마무리, 완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실력과 성적을 결정합니다.** 필자도 고1 수학 성적을 5~6등급으로 마무리 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멘토링 후, 이론정리와 오답에 집중을 했고, 결국 수능 전과목 전국 300등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수학이 어렵다. 수학은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 가장 힘든 과목이다를 말하지만, 가장 시작이 명확하고, 완성을 향해 나가는 길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과목입니다. 수학은, 이론정리로 시작하여 오답정리로 완성된다. 여러분만의 이론노트와 오답노트가 책상에 쌓여있는 그 날이 바로 여러분의 수학 마스터의 날입니다.

션티 선생님께 묻습니다.

Shean.T

- 現) 다원교육 고등관 강사
- KISS EBS, Masterpiece 모의고사 저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 통역장교
-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과정

Keep it slow but steady,
you win the race.
Shean.T.

Q1

션티 선생님께:

영어는 EBS가
기출문항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

수능에서 EBS 연계문항이
얼마나 나오나요?

A1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라는 질문과 참 흡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고르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굳이 고르자면 'EBS,' 즉 '그렇다'고 답하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아무리 간접연계가 시행된 후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현 수능영어에서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지문이 중요 유형에서 7지문입니다. 작년 수능부터 거의 고정적으로, '어법, 어휘, 빈칸(2), 흐름, 순서, 문법' 문제 지문이 EBS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이지요.

이는 사실 '기이한' 형태입니다. 수능은 '사고력' 시험인데, '내신' 시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깐요. 하지만 이 기이한 형태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장 이 크나 큰 이점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미리 '족보'를 주겠다는데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모의평가가 아닌 수능에서, 그 압박감이 심한 시간에, 자신이 미리 본 지문이 7개가 그대로 나와서 줄이는 시간과 마음의 안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이득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연계에서 시간을 줄이고, 비연계에 시간을 더 쓸 수 있는 것이지요.

EBS를 거르고 풀라고 하는 얘기는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에 있는 몇 안 되는 문제들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작년 KISS EBS ESSENCE(EBS 파이널 교재)에서 선별한 150 지문 중, 무려 6지문이 그대로 수능에 나와 학생들이 소위 '대박'이라고 외친 카톡, 댓글이 쏟아졌었습니다. 빈칸 한 문제는 자리와 번호까지 그대로 같았으니, 학생들이 본 효과는 두말할 필요 없겠지요. 따라서, 정말 자신이 영어를 잘 하는고수(EBS를 안 봐도 항상 고정 1등급) 정도가 아니라면, 꼭 EBS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9평 전까지 남은 한 달은 '수능완성'의 전 지문을 '영어 공부' 하면서 진득하게 하기를 권장합니다. EBS 지문에 있는 단어와 구문들로 영어실력을 늘린다 생각하세요. 수능완성 실전모의고사 1~5회도 듣기까지 시간 재고 같이 풀어 봄으로써 실전 연습도 할 수 있겠지요. 9평에 몇 지문이 보여서 효과를 보기도 할 겁니다. 9평 후에는 남은 두 달 동안 영어, 영독, 완성 총 지문을 최소한으로 선별해주어 공부량을 줄여주고 이를 반복해서 보게 함으로써 적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재, 강의로 공부하기를 추천합니다. 제 KISS EBS ESSENCE도 좋고, 1년 간 쭉 따라온 커리의 쌤이 그렇게 선별해주신다면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단, 그렇다고 평가원 기출을 아예 등한시해서는 안 되며, '최근 평가원 기출'은 꼭 '문풀 논리'를 위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Q2

선티 선생님께: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늘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분배 연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2

**'사전적으로' 시간 단축을 위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야겠지만요.**

앞선 질문 1번과 일맥상통합니다. 평소에 EBS 중요지문 N회독을 많이, 많~이 늘리세요 영어공부 한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수능에서는 똑같은 지문이 7개 나오기 때문에 EBS를 열심히 본 친구들은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EBS를 거의 하지 못하였고 혼자 볼 실력,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선별 변형 정리를 해주는 파이널 강좌를 듣고 복습하면 좋겠지요.

평소에 모의고사로 연습을 할 때, 그리고 실전에서는 '발체독' 혹은 '스키밍' 하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구분하여, 전자를 먼저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나서 후자를 공략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전자의 문제에 해당하는 유형은 목적, 심경, 주장, 도표, 내용일치, 광고, 어법, 흐름, 요약, 3문제 장문 정도가 있습니다. 목적과 주장은 아무래도 글의 뒷부분을, 심경 변화는 글의 앞뒤를 빨리 읽고 답을 내야겠지요. 도표, 내용일치, 광고는 선지 5번 부터 확인하며 답을 내시고, 어법은 해당 번호 앞뒤만 확인하며 답을 냅니다. 흐름 문제는 해석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빠르게 쭉 읽었을 때 눈에 띄게 다르도록 보통 출제되고, 요약은 요약문을 먼저 읽어 글의 핵심 구조와 물어보는 것을 파악한 후 필요한 정보만 지문에서 확인해 답을 내야 합니다. 3문제 장문 역시 이야기 형태이기 때문에, 순서-지칭-내용일치 순으로 빠르게 정보만 확인하며 처리해야겠지요. 이렇게 빠르게 풀 수 있는 것을 먼저 처리하고, 남은 주요 유형 중 EBS 직접연계를 적중 버프를 통해 빠르게 처리하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을 것입니다. 이 때 나름의 '사고 논리'가 필요한 문제들을 찬찬히 핵심 논리를 파악하며 푼다면 시간 관리가 잘 될 것입니다.

종합:

현 수능영어는 정말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과목임을 믿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기에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머리에 넣을 것'이 있는, 벼락치기가 가능한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단어를 50개씩만 제대로 외워도 수능 때까지 늘어나는 어휘력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EBS 학습을 통해 7개 지문 버프를 통해 얻는 그 시간적, 심적 이점은 가히 모든 과목 통틀어 최고 수준입니다. 부디 '영어 안 보는 대학 가면 되지'라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정진하여 정시에서도 수시에서도 영어 1등급의 득을 보는 현명한 수험생이 되길 바랍니다.

강원우 선생님께 묻습니다. —

강원우T

-現) 다원교육 강사
-現) EBSi 영어영역 강사
-現) 이투스 영어 대표강사
-現) (주)메시브 교육법인 대표이사

강원우
세상에
빛이 되리라!

Q1

강원우 선생님께:

제 친구는 벌써 실전 모의고사
푼다는데, 전 아직도 개념
공부 중이에요..
100일 남았으니 우선
모의고사를 푸는게 낫까요?

A1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똑같은 등급 내에서도 각자의 취약파트,
그에 맞춰 보완해야 할 파트는 분명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간이 중요한 시기에는 반드시 나를 위한 공부를 해야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 위주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춘 집중학습을 하는 계획을 세워
야 합니다. 시간낭비 없이 약점은 채우고 강점은 유지하는 학습을 할 때 단기간
에 엄청난 도약이 가능해 집니다.

취약점 강화 학습하는 방법은 [2019학년도 6평/수능 2020학년도 6평]
3가지 시험과 올 6평 경향성에 대한 분석으로 가능합니다.

활용법은

1. 정답여부와 무관하게 문제를 풀었을 때 자신 없는 모든 부분을 체크한다.
2. 세부 파트별로 나눌 것 [ex:단어문제/ 구문문제/ 논리문제/ 리스닝문제 등]
3. 학습계획은 가장 취약한 파트를 main으로 잡고 주 단위는 일 단위로 수립한다.
4.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완하는 '집중학습' 비중을 7로 ,
전체적인 감을 유지하기 위한 '모의학습' 비율을 3으로 두세요.
5. 자습이 힘들 경우 감으로 하지 말고 질문을 해서 학습 계획을 가이드 받는다.
6. EBSi 뿐만 아니라 다른 인강사이트도 대부분 기출 수업은 무료이므로
기출학습 후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은 반드시 확인, 분석하고 넘어간다.
[*기출이 가장 중요하니까~]

Q2

강원우 선생님께:

아직도 문장 해석이 잘 안 되고,
감으로 찍어요

Q3

강원우 선생님께:

빈칸, 문장 삽입 같은 논리 추론
영역 때문에 늘 1점 차이로 2,3
등급이고 항상 자신이 없어요..

A2

문장의 의미 파악이 되지 않거나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지 못하고 감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면 두가지. 단어 & 해석능력 우선 채워야 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단어와 해석 능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는 설령 모의때 좋은 점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전 수능에서 통수.. 크게 맞을 수 없습니다. 구문이든 독해든 수업 듣고 복습까지 충실히 한다 하더라도 각 파트별로 20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충분히 상승 변화가 가능합니다.

적용연습은 기출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설 문제집 10회보다 기출분석 3회가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이 특히나 급한 마음과 공부했다는 뿌듯한 마음 때문에 시중문제집으로 '양치기' 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수능에서 이기는 공부를 하고 싶다면,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개념 학습을 우선으로 하세요. 이후 기출로 개념적용 연습을 하는 형태로 학습하세요.

기출은 시간 압박 속에 풀기보다는 개념을 적용 확인 하는 형태로 꼼꼼하게 학습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능은 시중 모의고사와 완전히 다른 형태도 나타나며 난이도 자체가 급격히 오르는 문항들이 꼭 출제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개념 학습이 없다면 현장에서 많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A3

절대평가에서 안정적인 등급 유지를 위해서는 고정적 고난도 유형에 대한 정복이 필수입니다.

최근 수능은 특히 논리파트에 고난도 문항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평가원의 경우 특히나 정확한 답의 근거를 찾으라는 문항들이 자주 출제 되기 때문에 본인이 빈칸이나 순서, 어휘에 자신이 없다면, 반복적인 단순 문제 풀이 잠시 멈추고, 논리에 대한 개념학습을 우선 진행하세요. 모든 문항에는 답의 근거가 있습니다. 정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확한 답의 근거를 찾는 식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개념을 확실히 하는 것이 논리 파트에선 특히나 중요합니다.

Q4

강원우 선생님께:

평소에는 잘 풀리던 문제가
시험만 보면 잘 안 풀려요....

A4

평소에는 길고 복잡한 문장 해석도 잘하고,
지문에서 답의 근거도 잘 찾고, 고난도 논리 파트도 제법 잘 풀지만.....

실전에 들어가면 머리가 하얘지는 학생들은
압박감을 활용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1. 모의를 1주일에 2회 정도 푼다.

<이때, 1회는 시간제한 없이 답의 근거 찾는 형태로 2회차는 실전처럼 시간을 재고 푼다>

2. 문제별 제한 시간을 줄여잡는다.

빈칸추론 문항 한 문제를 130초 내에 풀어야 한다면,
연습에서는 110초를 잡고 푸는 것입니다.

3. 시계를 보이는 곳에 둔다. 시험지 바로 앞에 두고 압박감을 느끼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시간 제한이 주는 긴장과 압박감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점차 이런 압박감에 익숙해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개념학습이 되어있다는 전제하에 시간재고 문풀 하라는 것>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험때만 되면 너무 긴장한다는 친구들은

인근 재수학원에 사설 모의고사 응시 문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낮은 환경에 노출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를 반복하면 긴장감도 많이 컨트롤이 될겁니다.

종합:

“육체는 정신의 힘을 이기지 못한다” -강원우

수능을 앞두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주변의 시선과 스스로가 만든
한계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금보다 내일이 나아질 수 있고, 나아져야
합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키워주신 우리는 이미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대한
사람이니깐요.

사회가 만든, 스스로가 만든 한계를 부숴버립시다. 모든 한계와 제약, 전부
밟고 나아갑시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매일 하루를 충실
하게 쌓아가세요. 잘하고있는 건지 의심도 되고 뭐하는가 싶기도 할 수 있지만
꿈을 잃지 말고 지금처럼 꾸준히 걸어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차곡차곡 쌓인
그 시간이 여러분을 변화 시킬 것이며 여러분을 빛으로 만들 것입니다.

포기만 하지 마세요. 기적의 시간은 이제부터입니다.

6월 평가원 국어점수에 실망한 K에게

왜 6월 국어를 망쳤을까?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아침에 배가 아프고..’ ‘시간을 잘못 봤고..’ ‘어제 잠을 못 잤고..’ 샤프가 고장났고..

제발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 **실력이 없으니까 6월 국어를 못 본 거다.**



강사 심 훈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졸
현) 다원교육 국어영역 대표강사
현) 강남하이퍼(이투스) 재수학원
현) 모든 것을 능가하는 국어 대표
전) 김영준 국어논술학원 고등팀장



왜 실력이 없을까?

국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좀 억울한 얘기일 수는 있겠다. 세상에 1%정도는 국어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가 있기 마련이고, K양은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다른 어느 과목보다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실력이 없는 이유는 그냥 국어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라. 일단 국어 점수가 타고난 머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국어를 포기하고 대학가기를 포기할 것도 아니지 않은가? 게다가 국어 공부란 짧게는 고교 3년, 길게는 초등 독서부터 12년을 얘기하는 거다. 대치동에서 초등 독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한 애들이 발에 차인다. 고3 잠깐 국어 공부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점수를 올리면 된다. 다행히 수능국어는 국어 천재를 뽑는 시험이 아니다. 적어도 70%에 대해서는 범위가 분명히 정해진 시험이다. EBS에서 그것도 6월은 수능 특강에서만 70%가 나온다. 문학 작품은 시험장에서 감상하는 것이 아니다. 아는 작품이어야 한다. 만일 EBS수특을 한 번 풀어보고 던져뒀다면 이제부터 전체 작품도 읽어보고 주제도 생각해보면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감상’하길 바란다.

이번 주에 수능완성이 나온다. 내신 끝나면 바로 수능완성 ‘분석’에 들어가야 한다. 수능완성만 보면 되냐고? 아니다. 수능특강 안 봤다면 그것도 봐야 한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이 국어 점수를 운에 맡기는 거다.

시간 관리가 안 됐다면?

시간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남는 것도 문제다. 적절한 시간의 안배는 ‘연습’밖에 답이 없다. 각종 모의고사가 넘쳐난다. 고3 기간 동안 최소 30회정도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러면 생체 시계가 작동하게 된다. 좀 늦다 싶으면 몸이 알아서 식은 땀을 내보내며 신호를 보낸다. 숨겨왔던 실력을 ‘짜잔~’하고 보여주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평소 모의고사를 보듯 수능을 보면 성공이다. 진부하지만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조언을 하나 하자면, 시간 관리는 초반에 해야한다. 특히 문법이 시간을 아끼기에 가장 좋은 영역이고 학생들 간에 시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이다. 문법은 전문 영역이다. 비문학이 ‘교양’이라면 문법은 ‘전공’이다. 어간과 어근의 차이를 구별 해서 말할 수 있는가? 없다면 여름 방학에 문법 공부를 해라. 그러면 정답률도 올라가고 시간도 아낀다.

화법과 작문이 어렵다고?

화법과 작문은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30% 수준의 영역이다. 사실 어렵다기 보다는 심리적으로 빨리 풀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답이 잘 안 보이면 짜증이 나는 영역이다. 화법과 작문은 ‘예상’이 중요하다. 대화나 토론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적’인 진술이 눈에 띄고 실제로 문제에서 그것을 물어볼 때, 즉 자신의 예상이 들어맞을 때 시간이 단축되고 실수가 줄어든다. ‘나는 이상하게 화법과 작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화작에서 예상이 안 되는 사람은 누구나 부담스럽고 짜증나는 영역이다. 무식하게 들리겠지만 기출문제 ‘한 바퀴’를 권하고 싶다. 토론, 대화, 대담 이렇게 글의 유형을 모아서 풀어 보면 효과가 좋다.

든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그 비법을 찾으려는 태도를 버릴 때 비로소 글의 ‘패턴’이 보인다. 얘기를 풀어 나가는 방식이 ‘패턴’이다. 그 패턴에 맞추어 글의 내용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는 알겠으니 구체적인 과정이 이해가 안 되는 글도 있다. 어휘력과 배경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관련된 EBS 지문이 첫째요, 물-화-생-지 과학 교과서가 둘째요, 지문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셋째다. 우물을 퍼올리고 다시 두레박을 내리듯 그 행위의 반복을 수능날 아침까지 하는 수밖에 없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수능이 천재를 뽑는 시험이 아니고, 고교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출제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천 길의 우물을 퍼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성공 가능성이 꽤나 높은 도전이라는 말이다.

‘뼈 때리는’ 얘기를 해보려고 했으나 마음이 약해져 꼬집기 수준의 얘기밖에 되지 않은 듯하다. 고등학생은 반드시 국어 공부를 해야 한다거나 수능을 잘 봐야 한다는 전제의 말은 아니다. 개개인의 목표나 삶의 방향은 다르니까. 다만 수능 국어를 잘 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효율적인 전략을 세우고 꾸준한 실천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K! 수능도 일종의 국가고시다. 냉정한 시험에 ‘그랬쎄요~? 우주쭈’를 기대하지 않기를. 수능이 아니라 우주상의 어떤 시험도 4% 안에 들기는 어려운 법이다. 어리광은 엄빠에게 부리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길!

비문학은 어떡하나요?

일단 어떤 ‘비법’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한다. 11월 15일 아침까지 읽어 봐야 하는 것이 비문학이다. ‘비문학’이란 말 자체가 좀 웃기지 않은가? 세상의 모든 글이 비문학이다. 공자님에게도 칸트에게도 아인슈타인에게도 없는 것이 글을 읽는 비법인데, 대치동의 유명 강사 따위에게 비법이 있겠는가? 배경지식과 집중력, 기억력, 상상력의 향연이 바로 ‘독해’다.



수시접수, 자기소개서 문항별 접근

[학종] 정성민 입시연구소장님

정주현 연구원님

-SUB. “수시를 묻다”



3

—
정성민 소장님께
문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QnA



정성민 소장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학사/석사
-前)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 입학사정관
-前) 대치미래탐구학원 컨설턴트
-現) 다원교육 입시연구소장
-現) YTN 입시자문

정주현 연구원님

-다원교육 입시연구소



Q1

자기소개서 공통문항,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A1

학생부를 꼼꼼히 분석하세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서류는 크게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입니다. 학생부는 학교생활에서 드러난 학생의 특성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기록되어있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학생부의 내용은 주로 학생의 활동을 결과 위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학업 활동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어느 수준까지 공부하고,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어떤 발전을 거두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는 본인이 수행한 학업 활동 중 주요 활동들을 선정한 후 그 활동의 성격(깊이, 풍부함, 적극성 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컨셉을 잡아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술해 나가면 됩니다.

Q2

자기소개서 대학별문항,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Q3

낮은 내신교과 성적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Q4

‘희망학과’와 ‘장래희망’
이 변경되었는데,
불이익을 받을까요?

A2

자기소개서 4번인 대학별 자율문항은 사실 크게 보면
모두 지원동기를 묻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를 비롯한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은 공통적으로 전공 선택 이유와 지원동기를 물으며, 성균관대는 세개의 선택지 중 하나가 지원 동기 및 진로와 관련된 노력입니다. 또한, 가장 예외적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의 독서 문항도 주로 지원 동기에 영향을 미친 도서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과에 지원하는 이유, 지원동기를 갖게 된 계기, 학과 혹은 진로와 관련한 자신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됩니다.

A3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을 내신성적이라는
정량적 수치로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학업역량과 학업태도, 학업 외적인 소양을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신 지표가 낮은 경우에는 그것을 학생부 상의 기록이나 자기소개서 내용을 통해 전적으로 만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낮은 내신을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전공과 관련하여 자신이 수행한 주요 학업활동에서 기울인 노력을 사실 위주로 작성하되, 참고한 서적, 논문 등을 명기하여 학습이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수학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수학경시대회에서 수상하는 것과 같이 수상실적을 통해 자신의 취약한 교과성적을 보완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A4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일생동안 계속해서 꿈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아직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고등학생의 꿈이 변하는 것에 대학은 의아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희망학과와 장래희망이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 계기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영양학과를 희망하던 학생이 탄수화물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과학잡지를 읽고 뇌질환에 관심을 갖게 되어 의학과를 희망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개연성있게 서술해나갈 수 있다면 오히려 학과에 대한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Q5

임팩트있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작성팁이
있을까요?

Q6

전공적합성을 잘 살려서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A5

자기주도성과 진정성이 드러나는 활동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학은 학생 개인의 특성을 알고 싶어합니다. 학생이 자율적으로 목표와 의지를 갖고 활동에 임하였으며, 활동 중에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꾸준히 펼쳐나갔으며, 그 결과 학생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친 경험이 있다면 그야말로 학생 개인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임팩트 있는 활동일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부 작성 시에는 '뛰어나다, 우수하다'와 같은 공허한 구호를 기록할 것이 아니라 그 뛰어남과 우수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 <탐구활동 과정에서 자료조사를 깊이 있게 했다> ->

<탐구활동 과정에서 실천지능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0000000'
논문을 포함하여 3편을 논문과 지능에 관한 가드너와 비네의 원저까지 찾아서
읽는 등 사전 조사를 충실히 수행함>

A6

전공적합성은 학생의 적성과 소질,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진정성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잘 드러나는 자신만의 노력과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한 환경상 전공과 관련해 직접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때, 독서활동을 활용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전공 관련 독서활동을 통해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을 넘어서 폭넓은 간접 체험을 해볼 수 있으며, 이는 대학 진학 후 학업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본질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독서의 양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그 책을 통해 지적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넓혀나가며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쌓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활동이 됩니다.

종합글

대학은 여러분 각자의 개성을 알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잘하며, 어떤 것에서 나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는지 항상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민이 대학이 여러분을 뽑아야만 하는 여러분의 매력이자 가치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 내신으로 대학을 가지만, 내신 만으로는 가지 못한다.

“내신이 깡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신점수가 대학합격을 좌우한다는 뜻이 담겨있는 말인데,

왜 대학에서는 교과성적에 이렇게 큰 비중을 두는 것일까요? 바로 ‘똑똑함’과 ‘성실함’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학생이라면 누구나 3년동안 10~12번의 지필평가를 정기적으로 응시하게 되고, 그 결과가 수치화되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등학교 때 잘해온 학생이니 대학에 입학해서도 잘할 것이다”라고 유추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학은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성실한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것 교과성적으로만 알 수 있을까요? 생활기록부 곳곳에 똑똑함과 성실함이 드러나는 사례들이 보인다면, 내신만큼이나 학생의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자신의 가능성을 입학사정관들에게 입증하고 설득하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로 그 방법,

즉 생활기록부를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1번문항]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핵심 키워드는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습경험’,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이 세가지를 묻는 궁극적인 이유는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12년간 교육부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강조하던, 자기주도학습을 제대로 해보았는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기주도학습이 중요할까요? 대개 우리는 학교,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수업을 열심히 따라가곤 합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내일 할 일은 무엇이고,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어떤 교내대회가 있는지 말씀해주는 담임선생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 대학에서의 학업은 철저히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해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울 것인지조차 자율인 대학에서는 학생에게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묻는 것이 필연적이며, 지금 작성하는 공통문항 1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컨대, “대학에 들어와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 희망학과와 관련된 교과내용 중 지적 호기심 또는 어려움을 느꼈던 사례 선정 (2) 수업 외적으로 스스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탐구하고 공부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 (3) 이 경험을 통해 결과적으로 얻어낸 성취(보고서 및 소논문, 성적의 상승 등) 그리고 부족했던 점 (4) 이후 변화된 학업의지와 실천내용 등을 순서대로 적어내려가면 입학사정관들에게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특히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라는 말에서처럼 자신의 성장과정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고, 일회적인 경험이 아니라 깨달은 교훈을 내면화해 꾸준히 이어나갔다고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이 희망 학과와 관련해 큰 메리트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과 포부를 함께 기술한다면 더욱 매력적인 자기소개서가 되겠죠?

[2번문항]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3개 이내)
을 통해 배우고 느낀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학교장 승인 교외활동은 기재가능합니다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

대학별 특별문항(4번)과 더불어, 가장 많은 글자수를 적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문항입니다.

다시 말해 그만큼 상세히 기술할 가치가 있는 문항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기술해야 할까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의미를 두고 노력’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 활동이나, 온 열의를 다해 파고들었던 자율활동도 의미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겠죠. 또 ‘전공과 관련되어 의미있는’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활동이 전공과 관련된 기초적인 소양이나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자신의 전공적합성을 어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준 활동이 있다면, 그 활동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중심으로 기술하시면 보다 매력적인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교외 활동’이란 외부 경시대회 참가, 자격증 인증 취득이 아닌, 생기부에 기재가 가능한 학교간 교류프로그램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외활동을 소재로 하고싶다면 반드시 생기부 기재 가능여부를 확인한 뒤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3개 이내’를 ‘1500자 이내’로 작성하기 때문에 500자씩 3개의 활동을 서술하는 친구들도 있고, 750자씩 2개의 활동을 서술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2개만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어떤 활동이 내게 더욱 큰 의미를 갖기에 이 활동에 대해 더 자세히 서술하고 싶다면 2개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단, 2개의 비중은 비슷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1) 학교 생활 중 내게 큰 영향을 미쳤던,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선정 (2)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 (3) 활동 중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나 자신의 적극성, 추진력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 (3) 이 활동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의미가 있었는가? + (4) 이후 활동에서, 느끼고 배운 점이 어떻게 이어지고 확장되어 나갔는가? 를 순서대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팁을 드리자면, (3)에서처럼 활동의 결과보다 이 활동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를 잘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해마다 수천, 수만명의 자기소개서를 읽게 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소재는 이미 그들에게 익숙한 소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활동에 참여했더라도 느끼는 바는 각자 다릅니다. 흔한 멘토링 프로그램일지라도 어떤 학생은 책임감을, 어떤 학생은 공감의 중요성을, 혹은 자신의 적성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느끼고 깨달은 바로 그 의미가 여러분의 개성을 나타내고, 궁극적으로 수많은 자기소개서 더미 속에서 진주가 되어 여러분을 빛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그 깨달음이 다음 소재와 연결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학수업에서 시를 정형화된 틀에 맞춰 해석하려고만 했었는데,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해석해보려고 노력한 끝에 풍부한 문학적 경험을 할 수 있었다”라는 활동 내용이 있다면, 그 다음 활동으로 “그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풍부하게 문학을 바라보는 능력을 통해 독서토론 동아리에서 ‘1984’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주장을 펼쳤고 이 생각을 토대로 독후감대회에서 수상을 할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소재를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번문항]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단순히 교과성적이 잘나오는 학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과 함께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지원자가 필요함을 역설하는 문항입니다.

대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많이 울고 웃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팀플(Team Project)’입니다. 팀플은 잘하는 한 명이 있다고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분담과 갈등관리 및 헌신이 모두 잘 이루어져야만 무사히 끝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대학 및 사회에서 하게 되므로, 고교생활 중에서 이를 잘 마무리한 경험을 토대로 “저는 대학에 가서도 배려와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할 것입니다”를 어필하는 문항입니다.

소재로는, 동아리활동, 멘토링 및 봉사활동, 학급임원 및 학생회임원 경험이 가장 보편적인 아이템으로 사용될 수 있고, 2번문항의 연장선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 가지고 있던 배려심, 책임감, 협력 및 사회성이나, 갈등을 해결하고자 본인이 노력한 경험을 나타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례’를 묻는 문항인 만큼, 특정 사건이 일어난 경향이나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나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팀을 드리자면, 첫째 굳이 완벽한 결과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보다 좋게 보이려는 욕심 때문인지 결과를 미화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완벽하면 오히려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완벽한 결과를 적어내기 때문에 조금 부족했으나 반성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면 참신하면서도 겸손함과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타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코난이나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을 입학사정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메우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둘째, 깨달은 바를 전공과 관련지을 수 있다면 또 한번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희망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인성적 측면을 잘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협력과 리더십이 중요하겠죠. 이 활동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은 무엇이고,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책임감있는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작성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단,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 기억해주시길까요?

“수시를 묻다”



정성민입시연구소가 운영하는 웹진, “월간 정성민”의 Ensemble 코너에서는 수험생 여러분이 가지고있는 대학입시 궁금증을 함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소에서 ‘서류평가기준’, ‘의대입학전형’, ‘탐구선택방법’ 등 다양한 범주의 입시자료 및 지식을 여러분께 선보여왔습니다.

칼럼을 읽으면서 정성민 소장님께 더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monthlyjungsungmin@gmail.com 으로 질문을 보내주세요.

월간정성민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ㄹ ㄹ ㄹ
月刊 정성민

vol.1

다시보는 6월 모의평가
대수능 D-100 공부법
자소서 문항별 접근법

vol.2

다시보는 9월 모의평가
추석연휴, '이것'만은 꼭!
구술면접 완벽대비 방법

vol.3

직전대비 점검학습
수험생 멘탈관리법
EBS 특별선별문항

D-DAY

